



대한민국 청년 초청 사업

1988

국제협력사업단
연수사업부





대한민국 청년 초청 사업

JICA LIBRARY



1073696E5J

19067

1988

TAY
J R
89-12

国際協力事業団

1967

머 리 말

1986년 9월 나카쓰네(中曾根) 총리대신(總理大臣)께서 제창하셨던 「한국청년초청사업」은 금년도 제2 회째를 맞이하여 교원그리고 학생등 4 그룹 계99명을 초청하였습니다. 교원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3 그룹, 학생이 1 그룹이었습니다.

1 개월간의 체재기간중 강의, 시찰, 기관방문, 합숙세미나, 홈 스테이 등 토오쿄(東京) 그리고 지방 4 현(縣)으로 나뉘어져 다양한 경험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각그룹의 2-3 명의 청년들에게 부탁한 감상문과 일본측의합숙세미나, 홈 스테이 참가자들의 체험담을 중심으로 작성한것입니다.

본 사업에참가하신 여러분의 추억의 실마리가 되는동시에 참가자의 체험을 더많은 분들과 나누시게 되시기를 바라고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한국어판으로도 작성하여 참가한 청년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본계획에 따뜻한이해와 협력을 아끼시지않으신 관계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내년도 이후에는 더욱더 의의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할계획이오니 앞으로도 계속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89年 3月

국제협력사업단

연수사업부

부장 미타라이 아끼히로

(御手洗 章弘)

신뢰와 우정에의 출발

1988년도 한국청년 초청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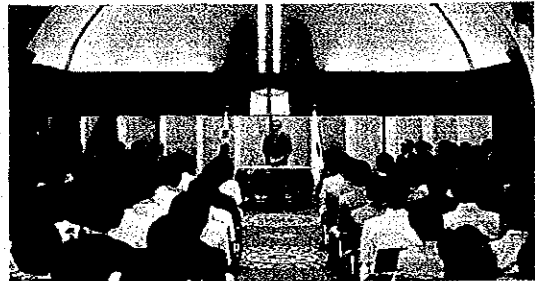


다케시타총리대신

(竹下総理大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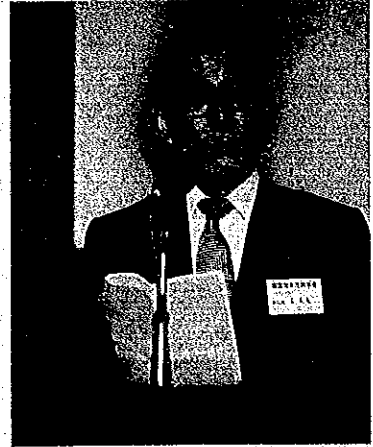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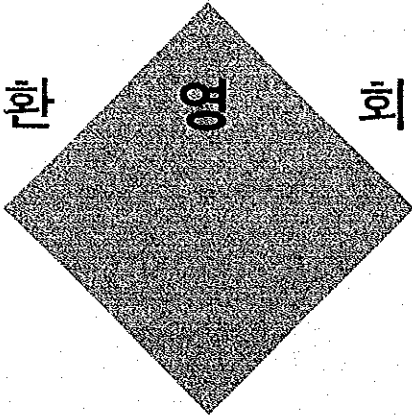
예방

1988년 8월 8일 한국청년 99명은
다케시타 총리대신(竹下総理大臣)
을 예방



▲ 다케시타 총리대신(竹下総理大臣)과 기념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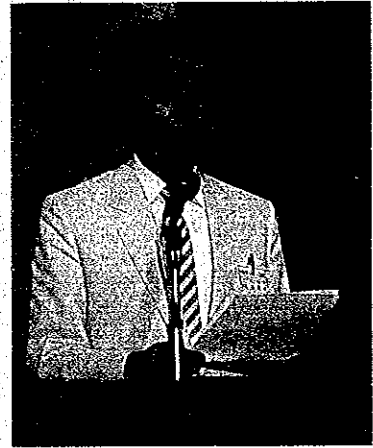
환 영 회



▲ 환영 인사를 하는 국제협력사업단 (國際協力事業團) 기시(岸)부총재



▲ 金鎮成 단장의 기념품 증정



▲ 金鎮成 단장



▲ 「한국청년초청사업」의 성공을 빌어 건배

공통프로그램

일주일에 걸친 일본의 문화, 역사,
경제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 부드러운 분위기로 일본어회화 연습



▲ 강의의 모습



▲ 일본부도관(日本武道館)에서 무도감상, 연무자과 기념사진 촬영

도내 분야별 프로그램

공통프로그램후에 네그룹(국민학교 교사,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학생)으로 나누어 도내각처를 견학 및 합숙세미나에 참가



▲ 학생들과 캠퍼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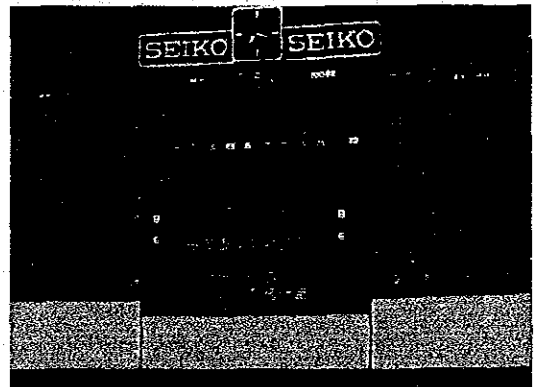
▲ 견학자리에서 개요신명을 받음



▲ 喫茶(喫茶)를 즐김



▲ 설비 견학



▲ 매크로런에 환영의 문장이 나타나다

지방 분야별 프로그램

네그룹은 각 실시현(県)을 방문,
 각각현(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에
 참가, 또는 홈스테이에 참가



▲ 대학생과의 교류회



▲ 도자기 제작에 도전



▲ 환송회



▲ 호스트 패밀리와의 만남



▲ 역에서 호스트 패밀리와의 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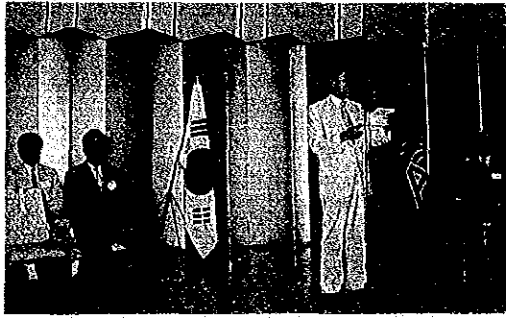


▲ 축제를 즐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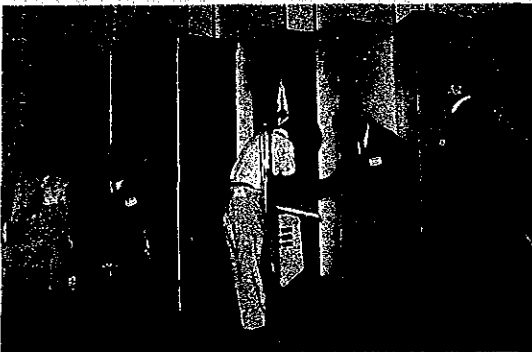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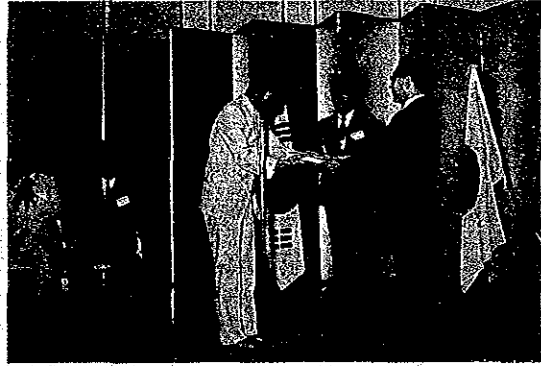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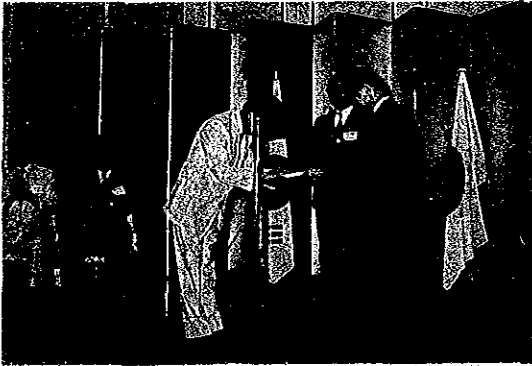
환 송 회



▲인사를 하는 기시(岸)부총재



▲사사를 하는 金鎭成단장



▲실시협력단체 대표자 앞에서 각그룹의 반장에게기시(岸)부총재부터 기념앨범을 증정



환송회에서 의 갖가지 오락



차 례

머리말

1. 대한민국 청년 초청 사업

(1) 사업의 개요 3

(2) 실시협력단체와 실시현 5

2. 초청 청년 감상문 7

3. 합숙세미나 참가 일본청년의 말 19

4. 홈스테이 가정이 느낀 인상 25

<실적자료>

1. 서울창구기관 32

2. 서울프로그램실시기관 32

3. 서울 프로그램 실시일정 32

4. 실시일정 33

5. 초청 청년 명부 37

6. 대한민국 청년초청사업 인수실적 일람표 46

7. 1988년도 청년초청사업 인수실적 일람표 47

8. 관련 청소년 단체 주소록 48

1. 대한민국 청년 초청 사업

(1) 사업의 개요

1) 목적

21세기를 향하여, 한국과 일본의 우호와 협력관계를 보다 확고하고도 결실있는 관계로 하기위해, 미래의 국가 건설을 담당하게 될 한국청년을 일본에 초청하여, 일본의 동세대청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돈독히하고 진실한 우정과 신뢰를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실시방법

①초청방법

1988년도는 100명의 청년을 동시기에 초청한다.

②초청대상자

아래와 같은 분야에 있어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18~35세전후의 청년.

(각그룹의 리더, 사부리더는 제외한다)

①국민학교교사	25명
②중학교교사 (사회과 특히 역사, 지리, 윤리사회)	25명
③고등학교교사 (사회과 특히 역사, 지리, 윤리사회)	25명
④대학생 (문과계)	25명

③초청기간 및 시기

초청기간은 7월10일~8월9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 출발전에 수일간의 현지프로그램을 실시한다.

3) 프로그램개요

수일간	서울 프로그램	서울의 강사에 의한 일본에 관한 강의 일본어 일상회화 학습 도일에 관한 설명
	공동 프로그램	일본의 전반적인, 정확한 이해를 촉진 하기 위한 강의 및 시설견학
일본도차	분야별 프로그램	각분야의 전반적인, 정확한 이해를 촉 진하기 위한 강의 및 시설견학
	도내분야별프로그램	일본의 같은 세대, 같은 분야의 청년과 친식 을 같이하는 의견교환, 교류의 자리
	합숙세미나프로그램	지방에서의 관련시설 견학, 지방청년과의토 론, 체험, 교류등의 프로그램전개
	지방분야별프로그램	일본의 가정생활 체험
31일간	휴스데이프로그램	일본의 가정생활 체험
	견학여행	広島(히로시마), 京都(쿄오토)등 역사적 도 시의 견학
	평가 프로그램	방일성과에 관한 의견교환
귀국	아프터 케아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각종 시책

4) 일수체재

본 계획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다음의 두 위원회를 설치한다.

①關係省庁調整連絡會議 (관계기관 조정연락회의)

(i) 임무: 본 계획의 실시 및 운영에 관계되는 기본적 사항에 관한 협의.

(ii) 구성멤버:

外務省經濟協力局技術協力課 (외무성 경제협력국 기술협력과)

아시아局地域政策課 (아시아국 지역정책과)

大臣官房文化交流部文化第二課 (장관 官房(간보우)문화교류부 문화제 2과)

總務庁青少年対策本部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

文部省學術國際局國際企画課教育文化交流室 (문부성 학술국제국 국제기획과
교육문화 교류실)

農林水産省經濟局國際協力課 (농림수산업 경제국 국제협력과)

労働省勞務局勤勞者福祉部勤勞青少年室 (노동성 노동국 근로자복지부 근로청소년실)

自治省大臣官房企画室 (자치성 장관 官房(간보우) 기획실)

國際協力事業團 (국제협력사업단)

②実行連絡調整委員會 (실행연락조정위원회)

(i) 임무: 실행계획의 운영, 분야별 프로그램의 실시 및 각 프로그램간의 연대에 관해협의하고, 프
로그램실시상에 관해, 국제 분재의 협력사업단에게 조언.

(ii) 구성멤버 : 관계성, 청에서 추진된 민간의 실시협력단체.

- | | |
|------------------|-----------------------|
| (社) 青少年育成国民会議 | ((사) 청소년 육성 국민회의) |
| (任) 中央青少年団体連絡協議会 | ((임) 중앙 청소년 단체 연락협의회) |
| (財) 世界青少年交流協會 | ((재) 세계 청소년 교류협회) |
| (社) 日本國際生活体験協會 | ((사) 일본 국제 생활 체험협회) |
| (社) 全國農村青少年教育振興會 | ((사) 전국 농촌 청소년 교육진흥회) |
| (社) 日本經濟青年協議會 | ((사) 일본 경제 청년협의회) |
| (社) 勤勞厚生協會 | ((사) 근로후생협회) |
| (財) 유스워커能力開發協會 | ((재) 유스워커 능력 개발협회) |
| (社) 國際交流서비스·協會 | ((사) 국제 교류 서비스협회) |
| (社) 青年海外協力協會 | ((사) 청년 해외 협력협회) |
| (財) 國際協力서비스·센터 | ((재) 국제 협력 서비스·센터) |

5) 실시운영분담

	프로그램 감리	프 로 그 램 실 시		식사, 숙소의 수배
		연 락 조 정	실 시	
현지프로그램	國際協力事業團 (국제협력사업단)	國際協力事業團 (국제협력사업단)	각국실시기관 (재대한민국일본국 대 사 관)	각국실시기관 (재대한민국일본국 대 사 관)
공동프로그램 (도 내)			國際協力서비스센터 (국제협력서비스센터)	國際協力서비스센터 (국제협력서비스센터)
도내분야별 프로그램 (도 내)		실시협력단체	실시협력단체	실시협력단체
합숙세미나 프로그램 (도오교근교)				
지방분야별 프로그램 (홈스테이를 포함)		실시협력단체 지방협력단체 (國際協力事業團) (국 내 지 부)	지방협력단체 (國際協力事業團) (국 내 지 부)	지방협력단체 (國際協力事業團) (국 내 지 부)
견학여행 (히로시마, 교토등)		실시협력단체	실시협력단체	실시협력단체
평가프로그램 (도 내)		國際協力事業團 (국제협력사업단)	國際協力서비스센터 (국제협력서비스센터)	國際協力서비스센터 (국제협력서비스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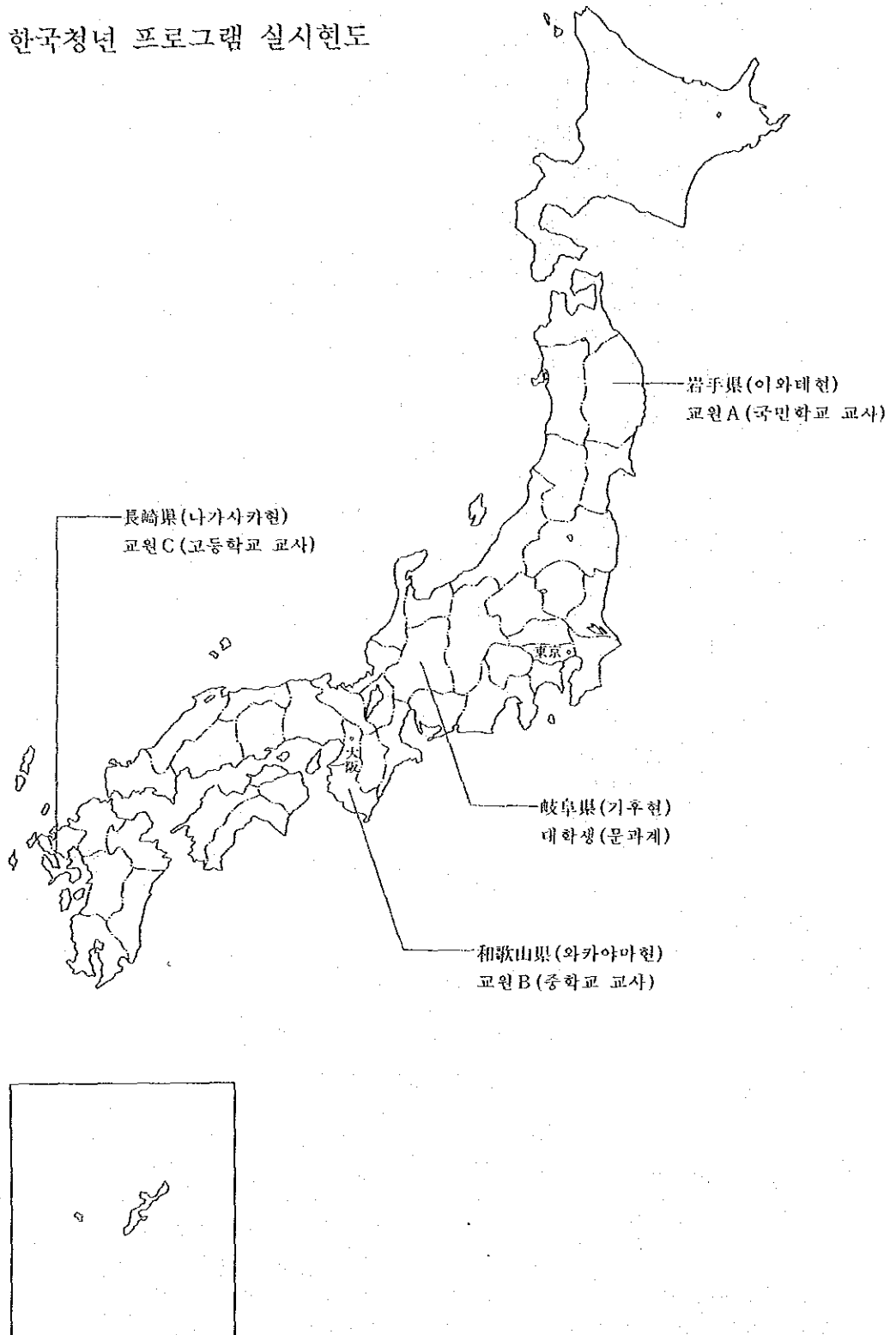
(주) 지방분야별 프로그램은 지방공공단체의 지도와 협력을 얻어 실시한다.

(2) 실시협력단체와 실시현

분 야 명	인수	실시 협력 단 체	실시현
교원 A (국민학교교사)	25	中央青少年団体連絡協議會	岩手
교원 B (중학교교사)	25	青少年育成国民會議	和歌山
교원 C (고등학교교사)	24	國際交流서비스協會	長崎
학생 (문과계)	25	世界青少年交流協會	岐阜

* 공동프로그램에 관하여는 國際協力서비스·센터가 전그룸에 대해 실시한다.

한국청년 프로그램 실시현도



2. 초청 청년 감상문

無事



김 진성 (金鎭成)
총단장 (總團長)

우리를 日本에 招請해 주시고 우리一行이 日本 여행에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까지 하여 주셨으며, 더욱이 오늘의 성대한 환송잔치까지 베풀어 주신 日本政府當局과 JICA 및 여러 協力團體의 任·職員, 特히나 이자리에 參席하여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感謝의 人事를 드립니다.

우리 訪問團一行은 本計劃을 추진하는 분들의 따뜻하고 정성어린 배려로 學校를 訪問, 日本의 教育制度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같은 教師와 大學生들 間에는 舍宿을 하면서 뜨거운 情을 나누고, 헤어질 때는 離別이 아쉬워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고, 다시 만나자고 約束도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機關을 訪問 모든 분들로 부터 真心에서 우러난 환영과 사랑속에 言語와 文化의 장벽을 넘어 真正한 友情 속에 相互理解의 폭을 넓히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貴國을 訪問하는 期間에 여러분으로부터 아픔담지 못한 過去歷史에 대해 마음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는 고마운 人事이기는 하나 우리의 真正한 아픔은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一行이 日本國을 訪問한 것은 21세기를 위한 友情計劃으로 貴國을 訪問 한바, 本計劃이 真正한 意味의 韓日 兩國의 새로운 歷史를 創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Homestay에서는 言語와 生活習慣을 초월, 真正하고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日本의 生活와 貫習, 그리고 文化를 배웠으며 이웃이 아닌 한家族 같은 뜨거운 情을 나눌때 마다 가깝고도 가까운 情을 느끼고, 헤어질 때는 너무나 情이 아쉬워 株式에서 兩國 國旗를 제작 부착하고 흔들기도 하였으며,

노래와 춤도 추웠고 헤어지기가 아쉬워 兩國 離別의 노래와 아리랑을 목이 터지라하고 거듭 부르기도 하였으며, 男女老小 區分없이 포옹하고 國家區分없이 서로 招待하고 서로 訪問하자고 눈물의 約束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情이 많은 우리一行은 더없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하나 우리가 못다 나눈 情을 우리 아들딸들이 나누고 나아가 우리 孫子들 대대손손이 뜨거운 情을 나누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40日後엔 우리나라에서 Olympic史上 最大規模의 서울 Olympic이 開催되는 바, 가까운 이웃으로 이의 成功을 위해 많이 協助해 주시기 바랍니다.

日本國을 訪問하여 이토록 뜻깊고 유익한 友情의 旅行을 할 수 있도록 수고에 수고를 거듭한 JICA와 모든 協力團體 關係官과 한달산 우리를 위해 함께 行動하며 헌신한 코디네이터 여러분께도 뜨거운 感謝를 드리며, 大韓民國 全地域에서 모인 우리一行은 故國에 돌아 가게 되면 여러분의 고마운 뜻과 보고, 느끼고, 배운 바를 사랑하는 弟子는 물론 동료, 나아가 全國民에게 전달 "21세기를 위한 友情計劃"이 所期의 成果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歡送會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거듭 고마움의 人事를 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感謝합니다.



〈감상문〉 일본 방문을 마치고



김 관식 (金寬植)

교원A그룹

7月10일부터 8月9일까지 한달동안의 일본방문을 통해 일본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참으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듯 한달동안 제가 보고 느낀것이 일본의 한부분에 지나지 않고 하잘것없었던 것일 지라도 저로서는 펍 뜻깊은 한달이었습니다.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역사 등을 개괄적으로나마 알게 되었으며, 각 지방의 관청 및 교육기관 등의 방문을 통해 일본의 실정을 확연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학교를 방문하여 선생님들의 수업을 직접 참관하고, 또 일본의 선생님들과 여러 차례 기탄없는 대화를 나눈 가운데에서 일본의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어서 펍 기쁠입니다.

오늘날 일본이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교육의 힘이였으며, 21세기의 미래 사회의 일본의 발전도 교육의 힘에 있다는 사실을 일본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인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의 등하교를 돕는 부모들의 모습과 부단히 연구하며 성실근면한 자세로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전력투구하시는 선생님들의 눈빛 속에서 느낄 수 있었으며, 첨단 과학 시설을 갖춘 교육센터 및 각 지방마다 건립해놓은 수많은 박물관, 도서관

스포츠센터등 각종 사회 교육 시설을 보고, 또 교육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21세기의 일본의 밝은 미래를 교육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교사로서의 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었으며 시야를 넓혀 일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펍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해준 일본청년단, JICA 등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한달동안 일본의 여러곳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九十九里와 遠野市の 방문 이었으며, 遠野市에서의 Homestay였습니다.

일본어 알자 못해 알고 싶은 많은 것들을 놓쳤지만 이곳에서 일본 사람들의 생활과 풍습, 그리고 특성등을 깊이 느낄 수 있었고,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각종 사회교육 시설을 통해 향토의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과 옛것을 보존하려는 모습에서 일본인들의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대한 애착을 엿볼수 있었으며, 어느곳, 누구를 만나나 한결 같이 밝은 표정, 상냥한 말씨, 예의바르고 친절함 일본인들의 모습에서 일본인의 장점을 배웠습니다.

또한 더욱 풍요로운 생활을 가꾸기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가지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 봉사하며 여가를 선용 하는 일본 청년들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따뜻한 인정으로 가족처럼 대해준 나의 Homestay 가족 사사끼 미끼오 씨와 吉里吉里 해변에서 Camping을 마련해준 모리오카(盛岡)와 토너(遠野) 청년단원 여러분께 우정의 뜻을 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본, 우리의 이웃.



정수정 (丁守正) 교원A그룹

21세기를 위한 우정계획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일본의 관계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체재 일 개월간 줄곧 우리 일행을 도와준 호토기(佛木)상, 하마오카(浜岡)상, 이와사카(板坂)상과 이와태겐(岩手県) 청년단체협의회 관계자와 천청에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리며 특히 다카노하시(鷹嘴) 사무국장, 사사키(佐々木) 국제교류 기구 이와태겐(岩手県) 지부 부회장께도 감사드립니다. 홈 스테이 가족들께는, 아마게별적으로 연락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일행을 따듯이 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나라로 생활 모습이나 언어, 사람의 생각새도 거의 비슷합니다.

교육현상, 경제구조, 산업, 문화도 비슷합니다.

단지 국민들의 의식구조와 지정학적인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일본국민의 부지런 한과 친절등 잘 다듬어진 문화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일행을 만났던 일본분들도 한국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한국은 일본국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세계는 동북아 시대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동북아시아에 한국과 일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교가 정상화 된지 20년이 지난 지금 양국은 역사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민간 차원에서부터 양국은 동반자가 많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귀국후 일본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교육등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 합

니다. 이웃을 도움 줄 알고 협력 하는 것이 인간들의 보편입니다.

자국 이익만을 위해서 힘 쓰는 국가는 국제사회로부터 환영 받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일일 생활권이 될것입니다. 12년만에 동서가 함께 하는 이번 서울 올림픽이 성공리에 시작 되었습니다. 세계는 평화 공존을 부르 짓게 되고 지구촌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의 우호가 더욱 증진되길 빌며 여기서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Homestay에 대하여



경혜영 (景惠永) 교원B그룹

약 보름동안의 Tokyo에서의 公式日定과 共通 Programme을 마치고 이제 地方

Programme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價值觀의 差異, 生活習慣의 相異함, 짧은 日本語 會話實力 등 問題點은 많이 있었지만 이곳도 사람사는 곳(?) 이라는 생각에 별로 두려움은 없었으나, 역시 가장 큰 장애는 言語였다. 그러나 目的地인 南部川村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오히려 마음은 차분해지기 시작했다. 우리 일행이 탄 버스속은 이제진짜 일본인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작은 동요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村長님의 환영사 海友會 會長의 환영사 등등, 그중에서도 가장 Highlight는 Homestay의 Host와의 만남의 순간이었다. 여지껏 共同生活에 익숙한 우리들이었기에 낯선 異國에 왔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었는데,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Host를 따라 각각 家庭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비로소 日本에 왔다는 實感이 들었다. 불과 이틀밤을 지내고 오는 Programme이었지만 헤이지는 同僚들이 그리 아쉬울 수가 없었다. 실제로 돌아오는 날은 그동안 친숙하지 않았던 同僚까지도 그

리운 対象이 되었으니, Homestay는 異國人과의 友情의 介교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他地에서 같은 民族끼리의 共感帶를 더욱 넓게 形成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おやすみなさい”

첫번째 Homestay에서 첫날 아침 일찍, 平常 時의 習慣대로 아침 散策에 나섰다. 발에서 일 하고 있는 할머니를 상대로 아침 인사를 한 것 이 바로 “おやすみなさい”였다. 당연히 담례인 사를 할 줄 알았는데 신통찮은 얼굴로 한번 쳐 다보고는 다시 일하는 할머니가 순간적으로 무 교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생각난 단어 가 “おはようございます”. 또 한 예, “학교 구 경 가시겠습니까?” Host의 정중한 물음에 그 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 무조건 말만 하면 “하 는 습관에 결국 본의 아니게 학교 구경을 하고 왔다는 어느 선생님. 그리고 Host와의 Shopping 때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려 “すみません”대 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하여 주변 사람들을 폭소시킨 예.

言語가 지닌 마력은 어느 곳에서도 힘이 막강 하다는 事實이 입증되는 순간 이었고, 日本人과 의 對話는 물론 日本의 社会·教育·文化·歴史등 諸般 지식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시키려면 基本 的인 일본어 회화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흔히 이런 表現을 한다. “生者必滅 舍 者定離”. 굳이 仏教信者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 상적으로 表現되어지고 있는 짧은 單語속에 人 生の 의미가 함축되어있음을 느낀다. 文化와 生 活 習慣·思考方式이 다른 地域의 사람과의 만남 이란 단기간에 그 文化圈의 사람을 모두 評價하 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사람을 장애를 직접 몸으로 뛰어넘고, 生活方式의 상이함이 실수로 나타날 때 이보다 더한 우호 증진의 방법은 없 을 것 같다. 그런점에서 좀더 “日本”이라는 社 會를 알기위해 “만남과 이해”의 場으로서 가장

진출했던것이 바로 Homestay가 아니었던가 한 다. 個人과 個人끼리의 만남이 國家와 國家間의 우호의 次元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하 며 이러한 Programme을 마련해준 JICA, 靑少年 育成國民會議 이려분께 感謝의 人事를 드립니다.

• • • • •
일본의 교육을 보면서

강 영석 (姜 榮錫)
중학교 교사 그룹



1. 교육의 의의

무궁화 사투라 봉선화등 모든 꽃들은 제각기 아름다 움을 지니며 피어나듯 인간도 운동에 소질이 있 는 사람,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 과학에 소 질이 있는 사람등 다양한 능력을 제각기 지니고 있다. 교육은 이러한 인간의 능력을 제대로 발 휘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있도록 하는 것 이다.

전통사회에서의 교육은 주로 가정에서 담당하 였으며 근대사회이후 대중교육의 필요성으로 교 육은 거의 전적으로 학교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오늘날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서로 유기적인 關係를 맺으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일본의 교육

(1) 학교교육

한국의 학교교육은 2학기제로 연간 수업일수 가 220일 이상인데 비해 일본은 3학기제로 연 간 수업일수가 240일 이상이며 주당 수업시수는 한국의 경우 34~36시간인데 비해 일본은 30시 간으로 되어있어 외형적으로 볼때는 거의 비슷 한 수업시간을 갖는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정규 수업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이 이어져서 학교교육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일본은 정규 수업 후의 (예: 주쿠)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 평준화 정책에 의하여 학교간의 학력차가 적은 데 비해 일본은 학교간의 학력차가 심하며 일류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한국은 학생들에게 국민정신교육을 매우 강조하여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개시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나 일본 교실의 환경을 보면 거의가 학생개인의 소개, 청소내용, 그룹의 역할 및 목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국민정신교육에 대한 의식적인 교육대신 학생 개개인의 개성신장에 더욱 역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사회교육

전국 곳곳에 설치된 각종 스포츠시설, 청년의 집, 자연의집에서 이루어지는 수영, 캠핑활동 등의 각종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밝은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청소년 국민육성회의에서 실시하는 통신교육, 단체활동의 추진교육, 청소년 비행방지활동, 외국 청소년과의 친선교류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며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일본의 사회교육은 한국보다 그 폭이 넓고 생활과 보다 밀착되어 있어 생활속의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

(3) 주쿠(塾)

많은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마친후 저녁에 다시 학습주쿠에 다니며 주쿠에 대한 교육의 비중이 매우 높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의 어린이는 공부라고 하는 점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로 시작되는 학습주쿠의 존재는 일본인의 학력신앙이 매우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있다. 한국에서는 과외금지조치로 인하여 학습주쿠의 존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주쿠의 존재는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으나 학교교육이 연장되기 때문에 학력신앙이 한국의 상황에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학교는 다인수 학급이라 교사의 학습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교교육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학습욕구 충족의 걸림으로 주쿠가 발생하여 거의 개별학습에 가깝게 학습지도가 이루어 지므로 학생들의 학력신앙에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지식획득만이 교육의 중심이 됨으로써 전인교육은 많은 문제점이 뒤따른다고 볼 수 있다.

3. 맺음말

교육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때 지, 덕, 체의 조화로운 인간을 길러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력 학벌사회에서는 지식 획득만이 최고라는 관점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사회교육은 경시되기 쉬운 경향이 있으므로 조화로운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고 머리만 큰 기형적인 인간만 길러내기 쉽다 따라서 교육개혁 심의회에서 학력에 과도한 무게를 부여하는 역효과의 개정을위한 제안의 수립은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일본의 사회구조



안 선례 (安 瑄禮)
중학교 교사

일본에 와서 한달여 동안 생활하면서 걸부분 그것도 아주 일부분만을 보았을 뿐

인데 일본에 관해서 글을 쓴다는 행위 자체가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메이지유신을 계기도 해서 근대화의 첫걸음을 대담고 국민들의 군센 의지력과 뛰어난 재창조력 그리고 국가의 체제가 3위일체가 되어서 근대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발달된 농업 봉건영주들의 공업화 협조 뛰어난 교육열이 굳건한 받침대가 되어준 것이 일본이 세계를 향

하여 그들의 야심을 축척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쟁을 시작했으나 결과는 패전이었다. 패전 후 아주 짧은 시간에 현재의 부를 이룩했다는 데 놀라움과 함께 의구심이 든다. 이전도의 부를 누릴 수 있게 된 때까지의 근본원인이 무엇일까? 제국주의 시대를 이끌어 온 강한 정신력, 뛰어난 교육열, 잘 정비된 정치제도에 미국의 기간산업을 위주로 한 패전초의 원조 그리고 한국의 동략 일남진 이러한 여러가지 조건들이 호조건을 이루면서 전세계 사람들이 놀라와 할만한 거대한 성장을 이룬것이 아닐까한 생각을 해 보았다. 일본에 와서 학교 방문, Homestay 그리고 교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느낀 점은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 세계속의 일본을 구현하고자 하는 생각, 쉽게 현실에 잘 적응하는 적절한 상황과약력을 지닌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기에 자유로운 제도 안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의 중심점을 향해서 매진할 수가 있었으리라.

그리고 일본의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전쟁 후에 미군들에 의해서 년주개혁이 이루어졌고 년주개혁을 바탕으로 하면서 일본적 기업경영으로 노사분규가 낮아서, 안정된 분위기 안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 기업이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기업성장이 일본의 경제력을 배가 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으리라는 생각이며 또한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일본의 교육제도로써 소수의 엘리트를 위주로 해서 우대정책을 하다보니 다수의 사람들이 교육전선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아예 학업에서 눈을 돌려 버리는 상황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파악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개인차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경우 개인과 개인사이의 이질감이 생기고 학교생활에 적응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괴로움을 줌으로서 이즈메 문제를 야기시켜서 인간경시의 품조가 서서히 나타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 까지 연장이 되어서 직장생

활에서도 문제가 될거라고 나름대로의 추측을 해보았다.

현재 일본은 경제적인 대국으로서 세계에서 인식이 되고 있고 전자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는 부의 축척에서 벗어나서 세계를 위해서 부의 분배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었던 하는 바램이다. 현재 개발도상국가들에게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의 무역을 통해서 세계사람들이 고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시야를 넓혀갈 단계라 생각된다.

日本人, 그 친절의 온상



정 영 일 (鄭 榮 一)
교원C그룹

나에게 있어서 日本은 먼 고장이었다. 外國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識見이란

보잘 것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 국가 가운데 日本은 더욱 먼 거리에 있는 나라였다.

日本 국기가 그려져 있는 JAL機를 타고 日本을 向하면서 나는 착잡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日本이란 과거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받은 것은 받으나 준 것은 없는" 나라였다.

東京의 밤거리는 화려하였다. Hotel의 窓밖으로 東京의 밤거리를 내려다보면서 나는 슬픈 생각이 들었다. 이봉창 의사의 투혼이 서린 이곳에서, "별을 해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려 했던 尹東柱가 의문의 獄死를 했던 이곳에서 友情의 架橋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日本人的 친절이었다. 東京에서 머문 어느날, 동료인 金先生과 나는 外出을 하였다. 그러나 地下鉄 回線을 알수없었던 우리는 헤맸

수 밖에 없었다. 이때 곁에 있던 日本人에게 行線地를 서론말로 물었는데, 그는 뜻밖으로 터갓, 出入口 뿐만 아니라 출입구 안에까지 들어와서 타는 곳을 아뢰켜주고 가는 것이었다. 종종 길을 물어 사라져가는 日本人의 뒷모습을 보아서 나는 참으로 감명 깊었다.

다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친절은 사세보(佐世保)에서의 일이었다. 적어도 나는 앞으로 일본을 떠올릴때 사세보(佐世保)의 거리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곳에서 나에게 친절을 베푼 日本人, 한 女性이 베푼 友情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와의 만남은 日本을 이해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었다. 별을 빛났고 밤은 깊었으나 나는 그속에서 흐트러지지 않은 日本의 精神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공원에서 느껴지는 靜的인 空間과 달의 빛같은 韓國과 日本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國家는 달라도 人間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情은 같은 것이었다.

내가 만났던 몇 사람의 日本人, 그들은 日本속의 평범한 日本人이었고, 韓國에 대하여 友好的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들로 인하여 나는 점점 日本人을 미워할 수 만은 없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나는 日本人의 친절에 好感을 가진다. 韓國人과 日本人, 인간이 가지고 있는 源泉의 모습은 결코 달라질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앞으로 日本人에 대한 우리의 인식변화는 日本人과 日本政府의 끊임없는 努力을 必要로 할 것이다.

우리말 俗談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日本이 “진정한 친절로 천냥 빚을 갚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나는 이 방문을 계기로 더욱 日本에 대한 관심을 높혔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日

本을 지켜볼 것이다. 몇명의 日本人이 나에게 베푼 친절로 내가 새롭게 日本을 인식한 것과 같이 日本은 진정한 친절로 나의 祖國 韓國과 더불어 歷史的 갈등을 이해하고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努力이야말로 21世紀의 진정한 友情을 표방하는 日本人의 精神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믿어보는 것이다.



日本에서의 한달



김 선권 (金 善權)
교원C그룹

7月 10日 JAL 952機가 서울 상공을 통과한뒤 불과 2시간 후 日本은 우리 일행의 직접경험의 대상이 되었다.

成田공항에 내렸은 때는 몹시 습한 기후에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우리 일행은 JICA의 안내를 받으며 池袋의 Hotel Metropolitan의 짐을 풀었다. 실례는 가슴을 억지로 누른 채 일본에서의 한달이 시작된 것이다.

東京은 이틀째 이른 아침에 느낀 것처럼 사람들은 쉼 여유있고 교통망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좁은 공간에 넓은 삶과 일터를 갖는 슬기를 보이고 있었다. 가는 곳마다 서비스산업적, 상업도시적 성격은 완연했다. 무엇보다도 부족함이없이 세계 속의 동경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7月 12日부터 24日까지는 日本의 社會와 教育·政治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특히 日本에 있어서 女性의 社會進出과 권위향상 및 평등관계로의 부상은 그것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법률적·철학적인 의미가 충분히 있는 반면, 더불어 다시 한번 가정에서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가 대두되고 있었다. 이것은 핵가족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주는 점

이 있는 반면 자녀의 소외의식을 증대시키므로 이 문제는 교육의 문제로도 직결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녀의 부모에 대한 태도”, “학생의 교사에 대한 태도” 및 “학생들 자신들끼리의 태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日本은 教育의 양적팽창과 더불어 질적향상 특히 윤리의식의 회복을 서둘러 父子間·師弟間의 정신적 지주를 찾아 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었다.

日本의 産業經濟를 살리기 위한 戰後의 노력은 개인적 생각으로 한국이 서둘러 배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日本의 여러 교수나 교사들은 일본의 과거와 현실에 대한 정직한 안목을 갖고 있었다. 일본인의 意識構造를 분석한 것 가운데 근대 이후 현대의 일본인은 「후쿠자와 유키찌(福沢諭吉)」의 自由·平等·社會觀·國際認識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꼭 동감이 되었고 일본교수가 그 의식구조에 대한 단점과 개선을 말한 대목에서는 학자적 양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우리가 본 학교시설은 꽤 훌륭했고 교사 나 학생은 자유스런 활동을 하고 있었다. 墨東養護學校 校長선생님의 人間尊重教育觀에는 존경심이 우리러 나왔다.

韓日教師間의 交流를 통해되는 상호교육현황과 사회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7月 25日 이후의 프로그램은 통해서는 지방의 문화와 산업 및 교육의 특색을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철저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었으며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몇 가지만 빼고 한국과 흡사한 점이 많았다. 「나가사키(長崎)」원록 자료관에서는 일본인들이 얼마나 전쟁을 혐오하고 평화를 추구하는지를, 역사적 비극을 잊지 않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려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처마에서의 Homestay 는 평생의 깊은 추억으

로 남겨질 것이다. 처마골골마다 배인 한국적 냄새는 “그향의 맛” 바로 그것이었다. 처마형과 형수의 참다운 애정과 소탈함과 정성 및 세심한 안내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큰 인연을 계속 맺어가고 싶다.

京都·奈良·倉敷는 日本文化가 가득 저장된 곳이며 일본을 지켜주는 햇불과 같았다.

日本人은 친절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민족이다. 서두르지 않고 모두가 자아실현을 위해 애쓴다. 日本은 한국에 비해 자연과 신의 축복을 더 많이 받고 태어난 나라이다. 다양한 자연환경과 그것을 가꿀 줄 아는 사람들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日本은 지금 빛나는 어린이 노동자가 있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보람을 찾는 어른이 있다.

빈틈이는 색색의 불꽃과 음식과 기계와 상업이 생생히 살아 있다. 하라주쿠(原宿) 젊은이가 있고 동경대학 연구실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 전통과 현대가 각각 따로 인 채 혹은 혼합되어 있는 채 있고 국가정책이 있고 자부심 많은 지방민의 생활이 있다. 강요나 지나친 간섭은 없다. 진정 교육·문화·정치·경제·예술…… 모두가 다양하다. 性과 타국문화도 꼭 개방적이다. 다양성과 개방성 속에서 무엇이 가장 일본적인가?

“日本化한다는 것” 그것이 일본적이다. “日本中心的 해석을 한다는 것” 이 일본적이다. 일본적 사고를 지니고 국제사회 속에서 어떤 가치관은 가지고 현대를 잘 적용해 나가느냐를 가르친다 이것이 일본인의 긍지이며 자부심인 것 같다.

그러나 길없는 양처럼 역할방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정신적 지주가 사라져 가고 있다. 다양성의 엄청난 힘이 상대적 우월성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결속력은 상쇄되어 가고 있다. 일본은 전통을 쥐고 있다. 새로운 역할 새로운위치, 새로운 리더쉽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장기간의 신인을 얻을 수 있는 정신적거래를 찾아내

야 한다. 그것은 학교교육의 회복으로 가능하다. 동경의 밤은 이렇게 민첩이며 잠들다가 밝은 햇살로 깨어 날 것이다. 많은 추억을 남겨 준 11本の 모든 풍물과 우리를 위해 봉사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린다.

• • • • •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양 충효 (梁 忠孝)
 교원C그룹

지난 7월 10일 일본에 도착하여 4주동안 동경, 하코네(箱根), 나가사키(長崎),

쓰시마(対馬)와, 교오도(京都) 등지를 돌아보고 많은 일본의 청년들과 이야기도 나눴다. 쓰시마에서는 2박 3일 홈-스테이하면서 진한정을 나누고, 가정의 속속을 보면서 일본문화를 깊이있게 느끼기도 하였다. 그중에서도 마음속 깊이 인상진 것은 나가사키 원폭자료관과 "다도"체험이며 또우정을 깊게 한 것은 합숙 세미나및 홈스테이에서 었다.

7월 26일 오후에 평화의 홀, 원폭 자료관, 평화공원을 살펴봤다. 평화의 홀에서 본 만화영화 "원폭투하의 날"을 보면서 나는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같은 가공할만한 위력이 존재하는 한 인류가 이루놓은 역사, 문화, 기술, 사랑, 평화등 모든 것은 허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아놀드 J. 토인비가 "인류가 영원히 생존한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인간이 이루놓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는 말을 절감할 수 있었다.

7월 27일 나가사키시의 어느 한 전통적인 가목에서 다도를 직접 체험해 왔다. 우리가 들어서는 입구와 주변엔 물이 뿌려져 있었다. 마음을 먼저 깨끗이하고 그릇을 닦은뒤 정성을 다해 "차를 드리고 고마움을 가득히 표현하며 마시는

속에 손님에 대한 예의, 상하구별이 없는 자세, 최선을 다해 순간 순간을 맞이하는 정신을 느꼈다. 이것을 안내원은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일 지도 모른다. "는 자세로 임한다고 말했다. 흔히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야구의 9회말 투아웃 이후의 역전 드라마에 비유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마 그런 역전이 가능한 이유는 최후의 순간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뤄진 결과 이리라, 그런데 다도의 정신은 그와같은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생활하는 순간 순간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님을 맞이하면서, 그릇을 바라보면서, 정원을 감상하면서, 메미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기회는 이번뿐이다.」는 마음가짐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같은 인간임을 확인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 속에서 서로의 우정이 깊어진 것은 사가미호(相模湖)의 도림센터에서의 합숙 세미나와 쓰시마에서의 홈스테이에서이다. 그것은 피상적 접촉이 아니라 서로의 호흡을 들으면서, 피부와 피부가 마주치면서 함께 땀을 흘렸고 밤늦게 이야기했고, 노래와 율동속에서 같은 인간으로서 공동체의식을 지닐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로 잦은 대화와 교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생각되었다. 깊은 신뢰와 성실성이 바탕이 되면 서로가 더 많은 희생을 아끼지 않게 될 것이며 이는 인류분화를 더 높은 경지로 이끌어 올릴 것이라 확신했다.

끝으로 「21세기를 위한 우정계획」에 참여하면서 내 스스로 더 겸허해져야겠다고 반성했다. 있는 그대로를 편견없이 바라보고 문화 상대주의적 바탕에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我) 모든 교육자들은 과거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가르치며,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나가도록 하며 어느 누구의 가슴에도 상처를 쥐서는 안된다

는 인류에의 정신을 확고히 싶어줘야겠다고 다짐했다.

※註1: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모든 교육자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이 동선 (李東仙)
학생그룹

솔직히 말하면,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구름위를 날면서도, 일본의 관문인 成田공항에

도착하여서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저 멍한 기분이었다. 뭔가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에 부딪히며 극복해 나가겠다는 생각 뿐이었다. 해외여행에서 흔히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 라든가 설레임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없었다. 옆에서 떠들어대는 사람들 속에서 너무나 침착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고보니 출국전에 받은 어머니의 걱정스런 편지도 한낱 기우에 불과했다.

도착한 날, 짧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된 우리의 일정은 다양하게 준비된 프로그램에 의해 계획성 있게 진행되었지만,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한꺼번에 인식하려는, 또한 인식시키려는 것에 의해 완전히 지쳐가고 있었다.

하루하루의 시작이 줄리는 눈을 부릅뜨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모든 날들이 보람에 차고,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하고도 아름다운 추억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때그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창가에 부서지는 아침 햇살을 한껏 받으면서도, 순간순간 느끼는 나날들이었다.

사람들은 지나버린 일에 대해서는 모두 아름답다고 얘기한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과 보낸 한달간의 마지막 날에 적어보는 글귀에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가 모두 배어드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동년배의 일본 청년들과 가졌던 합숙세미나이다. 잘 다듬어진 정원수처럼, 세련되고 부드러운 그들의 친절함과 예의바른 행동은 매끄러운 돌사이를 비집고 흐르는 맑은 물처럼 우리들 가슴을 파고드는 한줄기 생물이 되어 우리들로 하여금 맑고 순수한 세계를 가지도록 해주었다. 아무리 피곤하여도 그 피곤함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고, 끝까지 웃음진 얼굴을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에는 정말이지 감탄할 뿐이었다.

교류회가 끝나고, 그들이 흘리는 따뜻한 눈물로, 여행에 지쳐 그리움만으로 서글퍼진 우리들의 가슴은 적셔졌고, 남아있는 여정에 기대감을 가지도록 해 주었다.

이제 몇시간 후 우리는 정이 들어 버린 친구들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 동안 쌓았던 우정은 21세기를 위한 초석으로 삼고, 다가 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배를 외치는 것으로 헤어짐의 섭섭함을 달래보는 것이 어떨까.

日本国 紀行을 마치고



홍 정표 (洪政杓)
학생그룹

“始作은 반이다”라는 말을 많이들 쓴다. 과연 한달 간 日本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울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시간은 어김없이 흘렀고 몇장 되지 않는 원고지에 감상문을 쓴다는 것이 어설플까 짝이 없지만, 동안보고 느낀대로 쓰는 것이지만 완전히 私見임을 前提하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첫번째, 숙소지향에 대한 나의 見解는 모대학 모교수의 견해와는 조금 다르다고 할까보다. 일본열도는 남·북한을 합친것보다 약 세배가 크다고 하지만 인구에 비하면 과히 크지 않기에

諸空間을 效用 極大化를 爲해 쓰며 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일례로 공동묘지가 우리나라처럼 전 면적의 1%를 점한 것이 아니라 비척하나 정도로 몇개의 묘를 안장할 수 있는 공간운영이랄지 건축물 등이 쓸모 없는 공간은 최대한 지양하고 정말이지 꼭 필요한 部分에 꼭 있어야 될 설비를 완비해서 빌딩이나 주택이 지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큰 것이 아름다울 수도 있겠지만 보다 작으면서 큰 것 못지 않게 機能을 발휘한다면 작은 것은 큰 것에 비해 아름다움과 효용성의 가치가 보다 가치롭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肯詩를 갖는 民族임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고 해야겠다.

두번째, 時間概念

신간선중 히카리라는 열차는 시속 200km를 계속해서 달리는데 그것은 시간의 절약이 곧 生活의 편리와 운배와 직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았고 꽤사 치밀하게 시간운용을 위한 예약과 프로그램설정이 또한 인상깊었기에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는 現代人은 이런 것이구나하면 서도 여가선용과 餘裕에 대해 강한 회의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국가전체를 공원화하려는 움직임과 제쳐휴양시설이 고도의 관리기술과 더불어 잘 정비되어 있어서 부럽기 까지 했다고 해야겠다.

세번째, 무질서속의 질서

日本이 오늘의 日本을 있게한 根本的인 힘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은 이 글을 쓰기에 너무 뻔하지만 그것은 축제文化的 活性化를 통한 町會體文化의 형성으로 걸침된 民間의 힘이 對話와 妥協을 통한 非零和의 게임이론을 指向한 政治體制과 연결되어서 도출된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리라 나는 생각한다. 숨막힐 정도로 복잡한 동경의 거리에서로 이상스러운 정도로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나치게 미화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러나 글을 마치면서 그래로 우리나라가 좋

다 낡다라는 말은 가급적 쓰지 않으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日本人들은 역시 심각한 個人主義的 思考에서 비롯된 egoism에 이미 접이 들고 있다라는 것과 경제적인 부국으로 성장하면서 相互主義的인 關係는 무시되고 최근에는 사례적인 의미로 개발국을 대하고 있구나라는 시각이 생겨졌으며 文化的 우월성을 애써 강조하고 모든 것을 日本化시키려는 무서움을 섬뜩하게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統一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다면 세계대국이 될 수 있을 텐데... 짧은 글을 마친다.

이웃사촌과 이웃



정 승원 (鄭勝元)

학생그림

지금은 한국에서도 많이 퇴색해버린 용어이긴 하지만,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다.

사촌이라면 친형제를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형제인 셈이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이웃을 생각하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생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이웃이라면 주거 공간이 근접해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큰 의미로 볼 때 일본은 한국의 이웃나라이다. 그러나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서로가 걸끄러운 양금 같은 것을 가슴 속에 깊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달간의 일본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에 와서도 나에게 그 양금이 가시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맺힌 한이 너무도 큰 탓일까? 아니다. 일본인은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려 하고, 또 쉽게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수난의 역사인데 일본인들은 아무런 의미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일본 체류의 30일 동안에 보고 느낀 것은 바로 그러한 점들이다. 일본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많은 대화를 가지고 친분을 나누게 되었지만 그 학생들은 극소수의 일본인일 뿐 전체는 아니다.

그리고 그들도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바로 이웃에 있는 나라인데도 그랬다. 일본인들이 낙천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건 어떠한 일면에서는 도피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의 교육에 있는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제목이 21세기를 향한 우정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21세기를 주도할 젊은 세대끼리 교류를 많이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것보다는 일본의 교육제도, 아니 교육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일본에서의 30여일간의 생활에서 나는 일본인들의 친절함, 근면함 등을 보았다.

특히, 세미나를 가지기 위해 일본의 학생들과 합숙을 했을 때 그들의 성의, 지밀한 준비성, 친절 등을 보고 느꼈다. 그리고 국적을 초월해서, 젊음을 공유하는 세대간에는 뜨거운 정열과 희망찬 미래를 위한 전진이 있을 뿐이었다.

언어의 장벽도 우리에게겐 무의미한 것이었다. 서로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들과의 만남에서 얻은 결과를 많은 사랑들에게 알려주리라 생각된다. 그래야만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이웃 사촌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평화공원内に 있지 못하는 한국인 위령비를 히로시마에서 보았을 때의 감상을 간단히 적고자 한다.

恨

먼 저 하늘 끝을 응시하며
 눈물은 끊이지 않고,
 이만의 영혼은 아저도 구천을 맴돌고 있다.
 사슬에 묶여

그 한 맺혔던 세월을 지새고,
 조국산하에 대한 연원으로 하루를 보낸다.
 편히 쉴 자리 하나 없는 뿔뿔의 땅에서 차가운 지선마저 받으며,

고통과 안타까움은
 이제 설움이 되어버렸다.

그들이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 (주)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대하여

1946년, 広島県(히로시마현) 관계자들과 학생과 건물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広島市平和記念施設運営協議会(히로시마시 평화기념 시설 운영협의회)가 설치되어, 平和公園(평화공원)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평화공원이라는 성지이기도 하면서, 관광시설이기도 한 특수성을 가진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서였다. 공원 부지가 위령비의 설치할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 1967년의 공원내 시계탑 건설에 관한 심의시, 이후 공원내에는 기념비나 위령비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이후 이러한 방침에 의해 공원내에는 어떠한 공사도 열결 허가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그 후의 기념비나 위령비의 설치에 공원 주위의 하천 녹지대에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1967년 이후 공원내에 세워진 기념비나 위령비는 그 이전에 허가신청이 인정된 것에 한하고 있다.

韓人原爆犠牲者慰靈碑(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는 1970년 4월 10일, 在日本大韓民国居留民團広島県本部(제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히로시마현 본부)에 의해 건설되었다. 당초 공원내의 설치를 희망하였으나, 広島市平和記念施設運営協議会(히로시마시 평화기념시설 운영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공원내의 건설이 불가능하게 되어 조신왕조 최후의 왕세자 李 垠殿下(이 온 전하)의 조카인, 당시 騎兵第五連隊(기병 제5연대)에 소속되어 있던 李 錫公殿下(이 우공전하)가 피폭, 발견된 있던 相生橋(아이오이교) 근처의 木川橋(홍가와교) 서쪽 하천녹지대에 건설되었다.

3. 합숙세미나 참가 일본청년의 말

귀중한체험을 앞으로 활용하고싶다

아오끼 나오요시 (齋木 直芳)

도오쿄도(東京都)·교원

이번의「한국청년초청사업」에 참가하여무엇과도 비할수없는 귀중한체험을 얻게되 앞으로의 공부하는 면에서도 참고된점이많아 이제험을 보다 유익하게 활용하고싶어 가슴을 부풀리고있습니다.

1. 교류프로그램에 대하여 느낀점

제가 소속한 그룹은 솔직하게 일본교육의실정과 한국교육의실정을 서로비교해가며 지나칠정도로 열심히 토론을했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걸렸던것은 한국선생님들은 지금도 일본의교육이 아직 옛날의 군국주의적 시대의교육을 하고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것과, 나이드신 선생님들께서 일본의 현실을 옛날의 눈으로 보고계시기때문에 정확한 현재의일본을 보지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의「우정계획」같은 직접적인 체험을통하여 이러한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던것으로 추측됩니다. 양국의 교류의기회가 앞으로도 점점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갈망하고있으며 젊은세대의 교류야말로 양국의우호를위해 없이는 안될요소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방일한 선생님들과 일본의 젊은 이들이 단발적인행사로 교류를 가졌다고 생각하고있다면, 그것은 틀린생각이며, 이번의기회를 계기로 장래에까지지켜 우정을깊여나가는 계속적인 노력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 전반적인 면에서 느낀점

①장유유서에관한 일면

제가 상대방에게 맥주를 따를때,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양손으로따르려고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받는사람이 연하일경우, 글라스를 두손으로 잡는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따르고있는 제가 연상이니까 두손으로 따르는것은 결코 옳바르지 아니하고 한손으로 따르는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한국사람들과 접할때 이러한그곳의 풍습을 잘 알아두는것도 중요하며 이것이 자연스럽게 몸에배수있도록 이웃나라에대한 이해를 위해한층더 노력하지않으면 안된다고 느꼈습니다.

②타인의 가슴의아픔을 아는가(당장님의 인사말씀 내용으로부터)

식민지시대에 당한 민족의굴욕, 육친의고쳐는 것밖은 쪽은 몰라도 것밖힘을 당한쪽은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과거를 정시하며 민족의역사를 이해한입장에서 비로소 새로운 양국의우호관계를 창조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게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과의 교류를 끝낸지금, 애정을 느끼는 한국에 다시 방문하고싶은 욕망이가득합니다만, 지금의 저의 입장으로서는그것도 이루어질수없고 내년에야말로 한국을 방문하여 이번에 알게된 한국의 젊은 선생님들과 재회하여 서로의 우정을 깊여갈것을 지금부터 기대하고있는바입니다.

가까우면서도 가까운나라 한국

나카우찌 스마(中内 すま)

오오사카후(大阪府)·공무원

다른문화에 접하면 새로운 시점과 새로운 감동을 느낀다. 그리고 직접 사람과사람이 만남으로서

느낄수있는 감동은 더욱 큰것이다.

1. 이렇게 탐고있다

다른 외국인에 비해 한국인 만큼 일본인과 표정, 동작, 복장등이 비슷한 민족은 없을것이다. 한국에 유학했었던 코오디네이터 모리시타(森下)씨는, 그의이름으로 일본인이라는것을 판단했지만, 그만큼 한국사람의 분위기를 갖추고있다. 일본에 죽살고있는 권(權) 씨등의 통역들은 반대로 일본인비슷한 분위기를 갖고있다.

통역이 없을때 우리들은 간단한 영어와일어 그리고 한국어를 조금씩 사용해서 교류를가졌다. 한자를 쓰는것 역시 효율적이였다. 놀랄만큼 명사도 동사도 같은 한자를 사용하고있다. 중국사람과 이야기할때도 한자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었으나, 중국어와 비교해볼때 단언 한국어가 일본어와 가깝다. 그리고 말의순서도, 문법도,비슷하기 때문에알기쉽다. 한국인이 영어를 마스터하는것보다 일어를 마스터 하는것이 상당히 빠르며, 일본인에 있어서도 제일 마스터하기 쉬운것은 한국어다. 이것은 큰발견이였다.

2. 우리나라 · 우리말

머뭇이나 이야기를할때 그들은 자주「우리나라」 「우리말」이라는 말을 썼다. 우리들도 그와 비슷한 표현을 쓰지만 「일본」 「일본이」라고하지만 「우리나라」 「우리」라는 말은 좀처럼 쓰지 않는다. 언어표현이 무의식중에 보이는바와 같이 일본인들은 자기를 약간 옆으로 미루어 「일본나라는」 이나 「일본사람은」 같은 조금 냉정한 표현을 쓴다. 그러기때문에 자조적인 표현이 되는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대화를 들어본다, (한국인 = K, 일본인 = J)

K 「일본사람은 왜 북한과 국교가 없는 데 가깝너그러운태도를 보이는가」

J 「일본사람은 팔방미인이기 때문이지」

K 「일본이 전쟁에 패하여 미국사람들이 들어왔을때 일본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는가」

J 「처음에는 귀축미영(鬼畜米英) 이라고생각하였다. 일본사람도 아세아의 여러나라에서 잔혹한행위를 행해왔기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당할 차례라고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사람들은 신사적이었고, 맥아더장군을 존경하는사람까지 나타났다는 이야기도있을만큼, 일본사람은 정세에 맞추어 속히 자기자세를 바꾸길잘하지」

라며 방관자적이다. 이일본인의답변은 「성격」 면만으로 설명한다며는 이성적인 답변이 못된다. 일본인적, 정서적, 상황적인 응답이였다. 이것도 일본적인 문화인 것인가. “다른문화에 접하면 자기나라의 문화가 잘알게된다” 라는것을 실감하였다.

그후, 소프트볼대회, 우리B그룹은 베스트 멤버와 행운이 겹들어 당당하게 우승을 획득, 빅토리 파티는 다른그룹의 멤버도 함께참가하여, 밤늦게까지, 노래를부르며, 이야기물나웠다. 조금의 망서림도, 스스럼도없이, 솔직히몸도마음도 해방된 기분이었다.

2박3일이 매우 짧게 눈깜짝할사이에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 통역의 덕택으로 의견교환을 활발히 할수있었으나, 예정했던질문은 아직 많이 남았다. 또한 오해도 많이 있었을지도모른다. 이번의 교류를깊게하기 위하여, 다시 만날때에는 직접 쌍방의 공통언어로 이야기를 하고싶다고 생각한다.

한국고등학교선생님들과의교류

타즈께 가즈히사 (田附 和久)

토오쿄오(東京都) · 학생

1988년 7월 21일부터 24일까지의 4일간 한국 청년초정사업중의하나인 한국고등학교교사 그룹의여러분들과 교류를 가질수있는 기회를 얻었다. 한국의 고교선생님들을 맞이한 일본측의 멤버는 거의다 한국측과 같은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었

다. 우리 東京外國語(토오쿄가이코구고)대학 조선어학과 학생들도 통역한다기보다는 약간의 도움이라도 될까하여 5명이 참가했다.

하꼬네(箱根) 관광, 연수센터에서의 토론, 스포츠, 교류회등 짧은기간이었지만 참으로 충실한 내용이었다.

나 자신 한국을 방문한 기회가 많기때문에 한국의 학생들과 교류를하는일이 많으나 이번처럼 현인교육자들과 만날수 있는것은 쉬운일이 아니기때문에 매우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있다. 양국 선생님들이 열심히 교육문제에 대해 여러모로 연구하고계시는것이, 학생인 나로서도 ভাল수가 있었다. 그리고 양민족간의 장래의 관계도 교육의 문제와 깊은관계를 맺고있다는것을 알게되어 큰수확이었다.

3박4일이라는 짧은기간이었지만, 공동생활속에서 양국 참가자들은 상호에 대해 많은것을 배운것같았다. 이웃나라 라는관계에 있으면서도 우리들은 지금까지 편견없이 직접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부족했던가.

한편, 짧은기간중에는 완전히, 이해하기 힘든 점도 많이 있었던것 같다. 물론 이것도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앞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

합속세미나 참가 일본청년의 관계 인식하지않으면 안될것이다. 지금은 한일관계도 표면상으로는 잘되어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상대방은 다른문화를 갖은 외국이며 간단하게는 이해 못할 부분이 많다는것을 잊어버린다면 우호가 아니라 전시대에 겪었던 불행을 다시 되풀이하게 될것이다.

상호간의 차이를 인식한다면 오해와 의문은 차차로 시간을걸쳐 해결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하기위해 서로이야기 할수있는 좋은친구분들과 이번에 이렇게 만나게된것이 아닌가.

「마음의화(和)」를 넓히고싶다

나카야마 에이지 (中山 英治)

토오쿄도(東京都) · 교원

일본사를 가르치고있는 나로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매우 흥미깊은 것이다. 이번합속세미나에 관해서도 서로의나라, 그리고 나라에대해 각자가 갖고있는감정을, 사고형태가 다른 두나라의 국민이—그것도 직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침식을 같이하며, 얼굴은 마주보며,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눌수있는 매우 드문 기회였기에 나는 기대를 했었다.



한일양국은 과거에있었던 역사상의 불행한 일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는 「가깝고도 먼 나라」의 이미지, 한국에 있어서는 「반일」 감정이 존재하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이번합숙 세미나에 참가하여 한국과일본의 양국민이 상호 이해하여, 우호관계를깊이하며, 서로의 마음과마음의 연결을 만들어갈수있는 가능성을 크게갖고 있다고 실감했다.

과마음의 연결을 만들어갈수있는 가능성을 크게 갖고있다고 실감했다.

합숙 세미나동안 강연, 분과회에서 자유토론, 스포츠대회가 거행되어 각기가대단히 유익한 것이었다. 특히 의의가깊다고 느낀것은 저녁의 교류시간의 톨을타 東京外國語 (도오쿄가이코구고) 대학학생들에게 통역을 부탁하여 「한국사람들의 변일감정」에대해 한국측의 멤버인 한 C선생님께 질문을 던졌을때의 일이다.

술을 마셨다는것도 있었지만 상당히 실례가되는 질문과 발언을했다. 사과드리고싶은 마음이 가슴에 가득차있다. 그러나 그때는 표면상의 교류만으로 끝내고 싶지가 않았다. C선생님은 나의 비릇없는 질문에대해 성심껏 그리고열심히 답변해주셨다. 그결과, 저는 C선생님이 어떠한 감정을 갖고있는가는 잘알수없었으나 그분이 열심히 응대해주시는걸보고 한일 양국민이 마음과마음을 교류할수있는 가능성을 크게 갖고있다는것을 실감하게되었다.

이번의 친선교류만으로 한일양국민의 상호이해가 급속히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않다. 일개월에 걸친 이번 교류중의 단 3박 4일의 세미나에 참가했었을뿐이지만 나와 나의주위에있는 사람들이 한국 그리고 한국사람들에게 흥미를 갖게되고, 상호이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눈을 뜨게된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이런 친선교류가 계속되어 개인과개인의 상호이해가 주위에까지 넓혀져 한일양국민의 「마음의화」가 차차로 넓혀질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한일학생 합숙 세미나를 참가하여

사토오 미카호 (佐藤 みかほ)

도오쿄도 (東京都) · 학생

이웃나라로서 한국에대해 흥미를 갖어온 나였으나 몇명의 한국인유학생, 인사말 정도의 한국말, 한국에관한 두 서너권의책……이것이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불려온 한국에대해 내가 갖고있는것의 전부였다.

두차례에 걸친 사전연수후에 맞이한 한일학생 세미나. 이기획에 참가함으로써나는 즐거운 추억과 더불어 매우 유익한경험을 얻을수가 있었다.

이 세미나는 내가 이전에 참가했던 파티형식의 국제교류와는 그성격이 크게 달랐다. 즉 내가 이전에 참가했던 파티형식의 교류회의경우 대개가 자기소개정도로 끝나버리며 깊은 대화를 나누지도못한채 지나가버리고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삼지도않고 계속성도 없어서 항상 안타깝게 여겨왔었다.

그러나 이번의 세미나는 스케줄의 대부분이 토론이며 디스커션의 시간이 충분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흥미에따라 그룹을 택할수 있었기때문에 상당히깊은 내용까지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다. 거기에다 3박 4일이라는 기간을 같이 보낼수있었기때문에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친해질수가 있었다. 이렇게 서로가 만나 친구가 되면 일시적인것이아닌 장기적인관계를 가질수있는것이 아닐까.

이런 시대든지 어디에서든지 중요한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다. 이 세미나처럼 구체적인 체험이야말로 다른나라나 민족을 이해하는 지름길이지 아니겠는가.

한일우호의일야

나카무라 도시유키 (中村 利幸)

시즈오카현(静岡県) · 학생

「국제교류란 무엇인가라고 묻기전에 우선 자기 자신이 국제인인가 어떤가를 생각하여 자기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한 한국 학생이 합숙 세미나의 디스커션에서 말했다. 이말은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크게 발전할것이분명한 한국, 그리고 그 한국의 장래를 젊어지는 젊은이들이 진정한 국제화와 국제인에 대해 열심히연구 구하고 있는것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내차신에게도 큰 자극을 주어 다시한번 국제관을 생각해볼 좋은 기회가 되었다.

디스커션을 통해서 보아도 발언중 곳곳에서 국가번영을 위한 자기의역활과 나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대해 긍지를 갖고있는것을 느끼게 해주어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을 금할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번 합숙 세미나를통해 제일 인상깊었던것은 첫날 밤에 우리 일본인측의 방에 한국남학생 두명을 초대하여 나를 포함하여 세명의 일본인과의 합다섯명이 술을 같이하며 잠담을 했었던일이다. 이야기는어느새 백열화하여 내용이 한일관계로 돌아가고말았다.

한국학생 한명이 통역이되어 서로 기피했던 역사의 이야기가 서서히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였다. 나는 설마이런 자리에서……하며 놀랐다. 그러나 쌍방 다 이일에관해서 의견과 생각을 말해보고도싶고 들어보고도싶었던것은 사실이다. 시간이 흐르는것도 취한것도 다잊어버리고 한국의 지도를 펴서 이야기를나눴다. 그러던중에 지금까지는 실감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사실이 매우 가깝게 느껴지며 왜 그런일을 저질렀는가하고 죄송하다는, 오직 하나의 심정이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꼭 이두운 표정만을 지었던것도아니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과거는이미 어쩔수없



다. 지금부터 장래를 향해우리들 젊은사람들끼리 계속해서 한일의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마무리의 말을 해주어, 눈물을 흘릴정도로 기뻐서 다시한번 한일을 위하여 건배하며 술을마시기 시작했다. 그때의 맥주맛은 기가막힐정도로 맛있었다. 서로가 마음속깊이 잠겨있었던것을 다 털어내어 상쾌한 기분으로 잘수가 있었다.

일생을두고 잊지못할 밤이되었다. 그들이 말한 것과같이 정말로 좋은관계를 미래에향해 젊은 힘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뼈저리게 느꼈다.

나의 국제교류——1988년판

마에다 다카코 (前田 隆子)

도쿄도(東京都) · 학생

우선 세미나의 준비를 통하여 얼마나일본사람들이 이웃나라에대한 인식이 부족한가를 실감하게 되었다. 최근에와서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한국에 관한정보가 입수하기 쉽게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알아야되는것을 잊어버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든다.

실제로 합숙 세미나가 시작되고보니 서로같은 또래라는것도있어 화기에애 즐겁게 나흘간을 보내게되었다. 디스커션중에는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하고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수있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사람들은 어른들에게는 「효도의 마음」으로, 동년대에게는 「감싸는 마음」으로, 언하에게는 「사랑하며 친절할 마음」으로 대하여야 된다는 것을 어릴때부터 몸에 배어있다고 한다. 이런 점이야말로 우리 일본사람들이 겸손히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친구가 한 말중에서 강한인상을 남긴 것이 있다. 그것은 「대학생은 지식인이 아니라 지성인이다! 배워서 알기만해서는 안된다. 실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말이였다. 일본학생도, 한국학생도 심한 입시경쟁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하여 자칫하면 지식편중주의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자세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나는 그들의 학생으로서의 사명감을 강하게 느꼈다.

“비슷하면서도 비슷하지 않는, 그래서 재미있는” 한국에 나는 지금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세미나를 통해 만나게된 한국 그리고 일본의 친구들을 일생의 보물로 삼아 앞으로 내 나름대로 국제교류를 전개해 나가고 싶다.

한국 일본 · 학생 합숙세미나를 참가하여

마기노 다케시 (牧野 雄)

도쿄도(東京都) · 고등학교교사

참된 친구를 원한다면 우선 자기소개를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해 공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에 참가할 때 나라라는 배경을 함께 뇌리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청년에게는 자기들(일본)이 그들(한국)에 대해 어떠한 일을 저질러왔는가 하는, 그리고 지금은 무슨 문제를 품고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 부족으로 인한 여러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정치를

맡고있는 사람들중의 일부도 역시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 東京都世界青年友의会 (도쿄도세계카이세이넨도모노카이),

합숙세미나에서는 사진 연수회나 정예회를 거행할때마다 과거의 한일관계를 확실하 인식하여 한국인들이 문화 · 사회로 말미암아 갖고있는 국민성을 이해하여 그것을 기초로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깊이생각하여 세미나에 임하지 아니하면 교류는 커녕 큰일이 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가득했었습니다.

한국유학생과의 교류회, 한글, 그리고 한국이 의공부회, 한일문제를 다루는 비디오상연회, 다카사키(高崎) 교수님에 의한 강연회 등등…세미나를 시작하기전부터 매우 깊이 생각하게되어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적극적인 국민성을 알면 알수록 세미나 당일이 오는 것이 무서워 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미나에서는 그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수가 있어 세미나가 끝날무렵에는 50명의 마음이 하나로 뭉치게 된 것을 실감할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들은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하며 일본에 대한 의문을 물어왔습니다. 어떤 분야의 그룹토론에서도 열띤 디스커션이 전개되어 시간이 부족할정도였습니다.

유교정신이 정말로 그들의 행동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있는 것을 깊이느껴, 마음이 썩어진 듯 하였습니다. 자기의 주장은 열심히, 그리고 확실히 내세우며, 한편으로는 예의참고 정말로 상쾌하여 일본사람들로부터 잃혀져가는 것을 간직하게보존하고있어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디스커션, 레크레이션, 교환회, 문화교류, 3박 4 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세미나를 끝내고 나는 그들을 통해 한국이 「가깝고 가까운 나라」로 느낄수있게되어 감개무량하였습니다.

4. 홈스테이 가정이 느낀 인상

가벼운 마음으로 성사한 홈스테이

아사누마 도시미쓰 (浅沼 俊光)

이와테켄(岩手県) · 교원

「외국사람을 집에 모셔! 그건 어려운일이다. 우선 인어가 통해야지? 식사는또 어떻게?」「그러나 이미 받아드리기로된일 어쩔수없다.」이라 하여 걱정의 나날을 보냈었다. (그러나 준비는 아무런 진전도없었다. 라기보다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않았다.) 홈스테이의 팜플렛을 읽은후 조금 안심이되어 어떻게 되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다시 준비없는 기다림 상태에 들어가게됐다.

이와테켄(岩手県)에 오신날의 환영회장에서 처음으로 본인과 만났다, 어떻게 처음인사를 나누어야 좋을까하며 고민하고있는 나에게 그가먼저「당신 술하세요?」(YOU DRINKING?) 라는 말과동시에 내 잔에 맥주를 따라가며 말을 걸어왔다. 아, 이 정도의 영어로 충분한 것이었구나. 문장이 아니더라도 그저단어만을 늘어놓아도……라고 깨닫고 「오, 예스, (YES) 그러나 조금만 (little)」 하며 손짓을했다. 이것으로 충분히 이해해주었다. 그래도 통하지 않을때 (영어단어가 떠오르지 않을때) 에는 종이조각에다 한자를 쓰면 통하였다. 집에서는 이러한 영어단어와 한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와테(岩手)라는 지명이 유래하게된 민화로부터 죠도가하마(浄土が浜)라는 지명에관 한 이야기까지 하게되었다.

가장 가까운외국나라 한국이 한동안은 먼나라로생각 되었었지만 단숨에 또다시 가까운 이웃나라가 되어 서울 올림픽으로 들끓은 한국의 열기도 느끼지게됐다. 외국손님이라하여 신경을쓴

만큼 그리고 그가 성의껏 대해준만큼 그에게 정이 들어 작별인사때에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또 그로부터의 편지를 읽을때에는 그가 어떠한 생각으로 썼을가 하며 꼼꼼이 생각하게 되기도했다.

이번의 홈스테이에서 뼈저리게 느낀점은 「누구든지 성의와 열의만 있으면 외국손님을 맞이할수있다」 라는 것이었다. 나역시 그러했듯이, 외국사람과는 영어를못하면 의사를 통할수없다 라는 등의 선입관을 버리고, 젊은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외국사람들과 있는그대로 부딪혀 주기를바란다. 그리하면 내가 배운것보다 더많은것을 얻을수있을것이라고 마음속깊이 확신한다.

정용남(鄭龍男)씨와의추억

오가와구찌 이고코 (小川口 郁子)

이와테켄(岩手県) · 교원

우리집은 이번에 세번째로 호스트 패밀리를 경험했습니다. 영어회화도 만족하못하여 몸짓 손짓으로 실패도많고 고집인 에서만 통하는 영어를 만들어버리는등 항상 웃음이 그치지않는 그런 가족입니다. 그러나 그러는중에 저희들은 얼굴표정의 중요성과 성의로 대하는것의 중요성을 배워왔으며 단한마디의대화, 혹은간단한의사가 통하였을때, 기쁨도 느껴왔습니다.

이번 정용남(鄭龍男)씨를 맞이하여 즐거운 3일간을 보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인상깊었던일이 하나있었습니다.

용남씨를 맞이하여 그림책(「한국」)과 지도를펴서 생활방식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에 일본과한국과의 거리가 그때까지 생각했

던것보다 가깝다는 이야기로부터, 토요일미 히메 요시(豊臣秀吉)가 한국을공격하여 전쟁이 시작되었다하는 이야기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이전부터 나는 과거의전쟁으로부터생긴중오가 그대로 남아있는것은 심각한일이며 우리들의행위를 잘반성하여 앞으로는과거를 잊지말고 그렇다고 과거에 묶이지도말고 사이 좋게 살지낼수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생각해왔었습니다. 서부른 영어와 한자의 필담으로서는 오해할위험성이 있다는것을 걱정해가면서도 이야기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때의 그이가 한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옛날의 이야기이며, 지금은 평화롭습니다. 우리들은 사이 좋게 지내지 않으면안됩니다. 그때문에 우리들은 일본 에 온것입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저는 어린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칠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라, 언어, 그리고 생활이 달라도 마음은 같은것을 느껴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나라에서 저와같이 교사로서 어린이들에게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직 어려모로 경험이 부족한 나이지만 한국의 선생님들에게 지지않도록 이번의 추억을 마음의 거울로 삼아 열심히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와 사람들과의 만남

기타우라 요시조오 (北浦 善藏)
와카야마현(和歌山県)·자영업

일본사람은 외국손님대접이 서툴다 하는이야기는 T.V.나 신문등을통해 자주 들어왔습니다만, 막상 자기가 그입장에 서게될때 이만저만 당황했던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음」만 통하면 충분히 서로 이해할수 있는것이다. 그리고 즐거운 우리가족을

보여드리면 된다 라는결론에 달해, 손님을 맞기로 하였습니다.

7月30日 헌덕청년의집에서 방일청년들과 홈스테이 가족들과의 교환회 석상에서 송종석(宋鍾錫)씨와 박종일(朴鐘一)씨를 소개받았습니다. 두 분다 중학교 선생님들이라는 것이였습니다. 송종석씨는 책과 라디오를 통해배워 일본말은 잘하였고, 박종일씨는 영어를 할줄 아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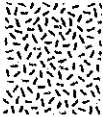
저의집으로 가는도중 고오야구치(高野口)중학교에 들렀었습니다. 여름방학이라 교실안에는 들어갈수가 없었습니다만 훌륭한 학교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와카야마(和歌山)로 오기전에 동경에서 학교를 견학했는데 빌딩의 사이에 끼여 자연도없어 좁고 답답해 보였다는 대답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어린이들은 자연의 포옹속에서 공부할수가있어 참으로 행복하게 여겨진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녁에는 저의 친구들 몇명을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같이하였습니다. 일본요리는 배에 입에 맞았던것 같았으나 소금에 절인 매실은 너무 짠것 같았습니다. 매실주는 맛있게 마셔주었습니다. 식사후 근처에있는 스미요시신사(住吉神社)의 축제를 구경하러 갔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진수정찬(珍羞盛饌)축재라고 부른다는 것이였습니다.

7月31日(나라칸 요시노초(奈良県吉野町)) 요시노가와(吉野川)에서 하시모도이도(橋本伊都) 청년회의소의 가족회와같이 오후에 쓰보사까(壺坂寺)절과 이시부다이(石舞台)를 견학했습니다.아스카(飛鳥)지방의자료(설명서)를 영어로 번역해 놓은쪽을 드리려고 하였더니 「일본을 공부하고 싶으니 일본어쪽을주세요」라고말해 새삼스럽게 감격하고 받았습니다.

아스카(飛鳥)지방은 그옛날 조선반도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여 그문화의 흐름이 오늘날의 일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두분을 맞이할수있었던것도 역시 무엇인가 건역사속의 인연인것같아 사람의 만남이 얼

마나 중요한것인가를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체험을 할수있게 해주신데에 대해 감사의말씀 올립니다.



필담때문에 잘 활약한 철판

사가모도 슈고 (坂本 修吾)

와카야마켄 (和歌山県) · 농인

1988년 7월25일 저녁, 우리집을 방문할 한국인 두분과 관청회의실에서 대면했다. 두분에 관한 예비지식에 의하면 한분은 일어와 영어를 할 줄안다는것이였었다. 그런데 첫대면때 「저희들은 일어를 못합니다」라고 갑자기 말하기에 시작하자마자 큰일났구나 하고 생각이 들고 걱정이되였었다.

딸 미사도(美里) (공무원)가 귀가하여 서투른 영어로나마 그러저러 회화를 할수있게됐다. 그러나 딸이 통하지않아 막혀버릴땐 철판에 글을 써서 겨우 이해를 했다. 그리하여 어디로 가든지 철판을 들고 다녔다.

<스케줄>

25일 저녁식사. 우리부부, 딸, 그리고 손님두분 도합다섯명. 식사중에도 많은 대화를나눠 주 소와습관등에 관해 두시간정도 이야기했다.

26일 오전. 이지방의 국민학교를 견학. 오후 이지방의 중학생이 임해학교로 가고있는 센리(千里)라는 곳을 방문해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과 간담. 매우 즐거운듯한 모습이였다.

27일 관청에서 작별

<느낀 점>

①모처럼의 기회이어서 지역의 사람들과 간단한 회를 갖게끔 준비하였으나, 일어를 잘 못하여 학습도 제대로 못하고 이쪽의 습관이나 실정을 전할수도 없었던것이 안타깝게 생각된다.

②바음에 걸린일 하나. 그들은 동경의 인상이 좋지 않았었는지 「동경에서는 한국인을 초청하는것을 반가이여거지 않은것 같은데, 여기는 어

홈스테이 가정이 느낀 인상

땡슈니까?」라고 불었다. 「진혀 그런일이 없다」라고 말했더니 잘 이해한것같았고 떠날무렵엔 「일어를 잘못하여 죄송했습니다」라고 말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한국청년을 맞이하여

타게다 히로미 (竹田 博美)

와카야마켄 (和歌山県) · 학생

외국청년들과 교류를 갖는 즐거움과 의의깊음을 나는 경험을통해 느껴본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족들에게는 전혀 처음이어서 무척 불안했던 것 같았습니다. 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것이 걱정이되며 특히 어머님께서는 식사에대해 신경을 매우 쓰셨습니다. 저도 채용시험등으로 바빠서 충분한 준비도 채못한채 어떤분들이 오시는것일까하고 기대와 불안으로 가슴을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분들과 만난순간 그런걱정들은 전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의집에 오신 김한영(金漢英)씨와 김명자(金明子)씨는 일어로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두분다 매우 명랑하시며 중학교 선생님들답게 똑똑하시고 친절하신분들이었습니다. 여동생과 나는 그분들과 한자가 섞인 영어라는 약간 유니크한 언어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 사이가 아니면 가질수없는 커뮤니케이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날에 김한영씨가

「한국으로 놀러오세요. 환영하겠어요.」라고 말하기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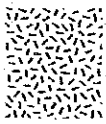
「언제든지 갈수있어요. 가까운 옆나라인걸요.」 그랬더니 김한영씨가

「일본사람들은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음에는 그렇게 느끼는것 같지만, 이야기를 나눌때까지는 별로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3일간의 교류중 나는 이대화가 제일 인상이 깊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라고하여 한국과의 교류가 어렵다는것을 이말속에서 엿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쾌한 미소와 저의 가족들에 대한 친절함 그리고 재가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남기고 두분은 귀국하셨습니다.

처음에 여러가지로 걱정했던 것은 어느사이에 잊어버리고 부모님도 할머니도 그리고 여동생도 두분을 맞이할 결심을해서 잘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조그마한 교류였었지만 다른문화를 접촉해볼수있는 기회였었으며 그리고 자기자신과 가족에대해 새로이 생각해볼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

아비루 아쯔시 (阿比留 敦)

나가사키켄(長崎県) · 자영업

나가사키켄(長崎県)의 쓰시마(對馬)와 한국사이의 가장가까운곳이면 53킬로, 즉 구주(九州) 본토까지의 약 3분의 1밖에 안된다. 이러한 쓰시마에 살고있으면서도 좀처럼 교류없는 지금의 이현상에대해 무엇인가 석연치못한것을 느낀다.

그런데 작년에 개최된 서울올림픽에 앞서, 쓰시마로부터 부산까지 "보트를 저어서" 방문했던 일이 있었다. 이어서 청년한명이 혼자서 수영으로 해협횡단에 도전하여 한국을 방문하고, 그 달래로 부산에서 한국청년이 역시 수영으로 해협을 건너 쓰시마에 도착하였다.

그런시기에, 나가사키켄의 국제교류과로부터 동사무소를통해 1박2일의 홈 스테이의 의뢰가 왔다. 홈 스테이하실분은 양천구 목동(陽川區木洞)에 살고있는 양정고교(養正高校)교사 성주경(成周慶)씨(33살)라는분이라고한다.

배포된자료를 보며 한글공부를 갑자기 시작하게됐다. 이웃에 살고있는 중학교2학년과 국민학교6학년의 소녀들을 파트너로 열심히 공부했다. 결국은 소녀들의 어머니까지도 같이 공부하게됐다.

그러는동안에 성씨가 영어를 할줄안다는 열락

을받아, 는 한글공부보다도학생시절에배운영어를 생각해내가면서 이야기하는게 조금 더나을까…… 하며 여러가지로 생각하다가, 사람과사람의 만남이다 말이통하지않더라도 마음은 통할수있는 법이다/ 라고 안심하려고 노력도해봤다. 또 서투른 말솜씨보다도 뭔가 좋은방법이 있을것같기도 했다.

이리저리하는사이에 본인을 맞이하는날이 다가왔다. 교류는 전원이 함께모여점심식사로 시작하였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무렵 청년한명이 웃는얼굴로 내게다가와 「미스터 아비루(阿比留)?」 라고 나에게물었다. 나는 무의식중에 「이라사이(어서오세요)」 라고 일어로 대답했다. 대화는 그것으로 충분했었다.

그렇게 생각하게된후 마음이아주편해져, 저녁식사도 우리 평상시에 먹던 그대로 쓰시마의생선과 집사람이 절인야채 그리고 국을 식탁위에 올렸더니 꽤 맛있게 많이 들어주었다. 보통 우리의 감각으로서는 곧 김치……를 생각하겠지만 꼭 상대방 나라의요리를 준비하지않아도 괜찮다고 느꼈다.

1박2일의 홈 스테이는 깜짝할 사이에 끝나 버리고 말았다. 「이 청년과 과연 언제다시 만날수 있을까?」 라는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헤이세이(平成)라고 연호가 바뀌던날, 그로부터 서울올림픽회장의 스탬프사진을 동봉한 봄을 알리는 소식이 왔다. 편지를보면서 나는 나도모르게 「성군!」 하고 중얼대었다.

무슨일이든 회피하지않고, 주장해야할것은 서로주장하고, 자신이 있을때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취하는, 그런교류가 되지않았나……라고 생각한다. 마음과 마음의 교류는 복잡한 대도회지보다도 쓰시마같은 마을에서 조용히 자라나는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된다.

쓰시마(對馬)에 있어서의 홈 스테이

타지바나 아쓰시 (橋 厚志)

나가사끼켄(長崎縣)·공무원

「쓰시마」(對馬)라는 지명은 먼옛날 기사와전진(魏志倭人傳)에 이미 나타났었고, 한국에서는 「대마도」라고 부른다. 이것을 일본식으로 읽어 「쓰시마」가 되었다는 설이 가장유력하다.

1988년 7월 30일 우리들부부는 쓰시마국민숙사에서 대한민국 광주시의 고등학교 교원 김선권(金善權), 이명열(李明烈)두선생님을 홈 스테이 패밀리로서 만났다. 2박3일의 홈 스테이가 시작되었다. 언어의장애를 두려워했던 그들은 우리들이 한국말로 인사를하니 깜짝 놀랐다가 둘이서 안심한듯이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다. 불고기파티는 일어, 한국어, 영어가 사방에서 들려 한층더 흥겨워웠다.

귀로에 우리들 네명은 집으로 향하지않고 내가 자주 들리는 단골스넥으로 차를 몰았다. 집사람이 한국어로 부른 「목포의눈물」은 서울신문에서도 소개한바있는 유명한노래이고 드디어 실내는 노래의 흥수가 밀려오게됐다.

사전에 나는 집사람과 몇가지의 유의점을 확인해놓았었다. ①쓰시마의입장, ②성의를 다한것, ③평상시와 변함이 없는생활. 이것은 나의 일곱번에 걸친 한국체재의 경험에 의한것이기도 하며 또한 과거에 대해서 일본인으로서 한국인에게 사과와 담래의 뜻을 표하기위한것이기도하다.

쓰시마에는 한국과의 교류를 입증해주는 유물과유적이 많다. 다음날은 시내 관광지를 한바퀴 돈후, 맥킬로의 어정을 드라이브하여 섬의북부에있는 가미.아가다 쥘(上島町)까지 가보았다. 그곳은 니혼쇼키(日本書紀)에 처음으로나타난 한국인 박제상(朴堤上)을 연유한 장소로 한국의 지식인 30명을 초청하여 일주일후에 기념비의제막식을 올리게 되어있는곳이다. 우리들은 제막

식의 리허설을 마치고 푸른해협을 바라보며 도시락뚜껑을 열었다.

박제상은 한국구국의 위인이며 일본에 유케당했던 사람이다. 작년에 이즈하라 마찌(嚴原町)에 건설된 최익현(崔益鉉)의 비와 같이 내년도부터 한국의 중학교교과서에 이 비들의 해설이 게재될것이 결정되어있다. 두선생님은 우연히 이 의의있는 제막식에 참석하게된것이다.

한국과쓰시마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깊은 관계를 맺고있다. 곧 맞이할 21세기때있어 쌍방의 우호관계는 한층더 중요한것이다. 국교란 나라라는 형식적인것이 아니라 사람과사람사이의 교제인것이다. 바람직한 국교란 한층좋은 인간교류의 어떤것도 아니며, 이번의 서로가인식한 우정의 꽃봉오리는 그때 비로서 활짝필것이다.

우리들의 우정은 지금 시작하였다!

우찌다 가요코 (内田 かよ子)

기후켄(岐阜縣)·주부

그녀가 떠날날 마당에서 팔래를 넣고있을때, 「한국언니책상위에 이런것이 있었어」하며 우리 아이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었다. 그것은 조그마하고 귀여운 납인형이 들어있는 작은상자와. 우리 가족에게 주고잔 략(郭)양의 메시지였었다.

「우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싶습니다……이번의 홈 스테이는 저의 일생을두고 잊을수없는 추억입니다……최후로 내가 부탁드리고싶은것은 “꼭 한국으로 놀러오시기를 바라는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기워졌다. 2, 3일밖에 체재하지 않았지만, 우리들의 공동생활은 충분히 마음의교류가 되었었다. 그녀는 일을 전공하고 있었기때문에 일본말에 능숙하였고, 일본문화에관한 이야기도 잘했었다.

첫날밤의 환영회에는 근처에 살고있는 아는사람이 「잘오셨습니다 략(郭)양」이라고 초콜렛으

로 쓰인 케익을 구워 가지고왔다. 저녁식사한 후에, 고바야시 잇사(小林一茶)의 하이쿠(俳句)가 루다(カルタ) 놀이를 시작했다. 히라가나(平假名) 열일곱문자를 그녀가 읽으며 아이들과 같이 놀았다.

다음날, 마고메(馬籠)에있는 도오촌(藤村) 기념관과 불이 깨끗한비경 가기조래(栴基) 계곡으로 안내하였다.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와 아구타가와(芥川)의 작품을 좋아한다는 그녀는, 시마자키(島崎)의 직필원고를 보던중 「하카이(破戒)」를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알고 있어요」라고 말하며 기뻐하였다.

저녁에는 스키야기와맥주로 건배한후 근처의 멋있는 다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돌아와 기모노(和服)를 입고 기념촬영을했다. 유가타(浴衣)를 입고 분노도리(盆踊り)에 갈려고 하였으나 비가와서 중지되어 그대신에 유카타 뿐만아니라 자팔무늬의 고몬(小紋)등도 입고, 매우 기쁜모양이었다.

마지막날 존경하고있는 오쓰시(大津市)의 일본식과자점 「가노오쇼오쥬안」(川匠壽庵)의 회장님을 찾아뵈어 다실에서 고급가루차(抹茶)를 대접받았다. 돌아오는길에 무라사키 시끼부(紫武部)연유의 이시야마(石山) 절을 견학하였다. 정말 잠깐하는사이에 즐거운 홈 스테이의 시간은 끝나고 말았다.

지금까지는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한국에 대해 조금밖에 아는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와의 대화를 통하여 여러가지를 배우게됐다. 한국에 가족이 생긴듯한 기분이다. 좋은분과 만나게되 감사히 생각하고있다. 우리들의 우정은 이제부터 시작되겠지…….

한국청년초청 첫 체험기

가도우 하루오 (加藤 治夫)

기후켄(岐阜県)·회사원

홈 스테이의 뜻도 잘모르면서 응모용지에 신

침을하여 사진의논회에출석, 안내서등의 자료를 받고 현실에 직면해보니, 그책임의 중대성에 내심 당황하고만것이 거짓없는 본심이다.

일이, 그리고 영어를 할줄안다는것을 듣고 조금 안심한것은 말할것도없다.

23일 회장에서 기대를 갖고 회견했더니 자료와는 전혀달리 일어를 조금도 못한다는것이다. 나 자신 역시 공부를하지않았지만 불안이 현실이 되어, 좀더 받아들이는측의 입장에서서 정확한 자료와정보를 제공할수없었던것일까 하는생각이 뇌리를스쳤다. 정확한 자료와정보가 있음에따라 교류활동의 내용이 한층더 넓어져 충실한것이 되리라고 생각되었다.

불안한기분으로 대면을하고있을때 마침 옆자리에있었던 역시 호스트 패밀리인 구조 하찌만(郡上八幡)의 사카이(酒井)씨가 한국통의 베테랑답게 유창하게 말을하고있었다. 그리고 나에게평상시와 같이 긴장하지말고 자연그대로 대화하면 된다는 어드바이스를 해주어서 큰도움이 되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집에 도착하여서는 우리집 두이이(일남일녀)들이 김찬팔(金燦八)씨와 같은또래에서 젊은이들은 시간도 얼마걸리지않고 마음이 오고가는 것 같았다.

손짓, 몸짓, 간단한영어, 그리고 필담을 조금씩 이용해가면서 대화는 꽤 폭넓게진행되어갔다.

다음날 아이들은 친구들을 불러 교류회를 가질것을 김씨와같은 젊은사람들끼리 계획해 양친을 초대하여 정말 즐거운 분위기였었다.

충분한 대접은 못했으나 우리들 가족이 나름대로 홈 스테이의 의의를 이해하게되고 또 김씨라는 아들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게되고, 귀중한 체험을할수있게되어 조금이나마 국제교류에 이바지하게된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있다.

실적자료

1. 서울창구기관

대한민국 문교부 사회국제교육국 사회교육진흥과

2. 서울프로그램실시기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3. 서울 프로그램 실시일정

		프 로 그 램 내 용		실시 장소
7/4	월		개강식 본사업의 설명, 그룹별프로그램의 설명(Ⅰ)	서울
5	화	강의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생활일본어학습(Ⅰ)	그룹별프로그램의 설명(Ⅱ) 그룹별 대화시간 한국가요연습(Ⅰ) 일본가요연습(Ⅰ) JICA브리핑 일본영화상영 (「일본의 가정」 「일본의 교육」) PANA여행사의 「해외여행시의 유의사항」	"
6	수	강의 「일본의 역사와 문화의 한국과의 교류」 생활일본어학습(Ⅱ)	한국가요연습(Ⅱ) 일본가요연습(Ⅱ) 강의 「일본 의 경제과 사회」 환송리셉션 그룹별 대화시간	"
7	목	생활일본어학습(Ⅲ) 파견자기본교육		"

4. 실시일정

①교원 A그룹 (국민학교교사)

		프 로 그 램 내 용	실시 장소
7/10	일	일본도착	東京
11	월	본계회의 브리핑 환영회 일본어학습 이수단체의 프로그램소개 생활가이던스	"
12	화	강의 「일본의 사회와 풍토」 강의 「일본의 역사와 문화」 무도감상및 교환회	"
13	수	東京学芸대학부속소학교 방문(수업참관) 부속도서관 견학 東京만남랑선투어	"
14	목	東京学芸대학 방문(대학방문, 교육공학센터 견학, 해외자녀교육센터 견학)	"
15	금	강의 「한국과 일본」 자주연수 영화감상	"
16	토	上野국립과학박물관 견학 浅草산책(浅草寺, 仲見世거리)	"
17	일	千葉로 이동 九十九里마을의 환영식 오리엔테이션 환영리셉션	千葉
18	월	세미나오리엔테이션 기초강연 분과회토의 저녁교환회 불꽃대회	"
19	화	九十九里町片貝소학교및 유치원 방문 九十九里정어리박물관 견학 東京로 이동	東京
20	수	자주연수 草月회관에서 꽃꽂이실습 神宮야구장에서 야구관전	"
21	목	文部성 방문(강의, 슬라이드 「일본의 교육제도」) 국립국회도서관 견학 歌舞伎감상	"
22	금	강의 「일본의 산업사」 강의 「일본의 경제」	"
23	토	岩手로 이동 오리엔테이션	岩手
24	일	岩手현립박물관 견학 NTT체육관에서 스포츠교류 청소년회관에서 저녁회	"
25	월	岩手현지사 예방 현개요 설명 현교육행정 설명 환영리셉션	"
26	화	湯本소학교 방문(수업참관, 의견교환, 학교급식회) 현청합교육센터 방문및 견학	"
27	수	厨川중학교 방문(과외활동 견학, 의견교류) 의견교환과 분과회토의및 저녁회(盛岡회관)	"
28	목	遠野시장예방(교육개요 설명) 遠野시민센터 방문및 견학 별래축제 견학 水光園(온천목욕) 저녁환영회	"
29	금	遠野민화의 마을 견학 홈스테이 오리엔테이션 홈스테이	"
30	토	< 홈 스테 이 >	"
31	일	< 홈 스테 이 >	"
8/1	월	広島로 이동	広島
2	화	宮島견학 広島시내견학(원목자료관, 평화기념공원)	"
3	수	京都로 이동 京都市내견학(清水寺, 二条城, 고대友禪苑)	京都
4	목	奈良시내견학(東大寺, 실크로드박람회, 唐招提寺, 薬師寺)	奈良
5	금	京都市내견학(金閣寺) 東京로 이동 귀국에 관한 설명, 제수숙	東京
6	토	< 귀 국 준 비 >	"
7	일	< 귀 국 준 비 >	"
8	월	자주연수 總理大臣 예방 평가회 환송회	"
9	화	귀국	"

②교원 B 그룹

		프 로 그 램 내 용	실시 장소
7/10	일	일본도차	東京
11	월	본개회의 브리핑 환영회 일본이학습 이수단체의 프로그램소개 생활가이던스	"
12	화	강의「일본의 사회와 풍토」 강의「일본의 역사와 문화」 무도감상및 교원회	"
13	수	港구립赤坂중학교 방문(수업참관, 학교급식) 東京터워견학 나이트투어 歌舞伎감상	"
14	목	시립佐倉중학교 방문(수업참관, 의견교류) 민속역사박물관 견학 大塚세미너 방문	"
15	금	강의「한국과 일본」 자주연수 영화감상	"
16	토	오리엔테이션(브리핑) 환영회 합숙세미너로 이동 교류의 저녁	山梨
17	일	그룹토론(I) 그룹토론(II) 스포츠교류 캠프파이어	"
18	월	富士, 箱根견학(大涌谷, 자원과학박물관, 桃源台, 관광선) 東京로 이동	"
19	화	자주연수 자주연수	東京
20	수	東京学芸대학 방문(학장예방, 도서관, 교육공학센터) 裏千家談交會 방문 야구관전	"
21	목	文部성 방문(강의, 슬라이드「일본의 교육제도」) 皇居산책 銀座산책 宝塚가극감상	"
22	금	강의「일본어 산업사」 강의「일본의 경제」	"
23	토	和歌山로 이동 오리엔테이션 환영리셉션	和歌山
24	일	자주연수 시내견학(「송사리의 학교」, 시립소년자원의 집, 시내산책)	"
25	월	和歌山현부지사 예방 전개요 설명 南部川촌으로 이동 환영회 홈스테이	"
26	화	< 홈 스테 이 >	"
27	수	홈스테이에서 집합 白浜견학(해수욕, 온천)	"
28	목	龍神촌으로 이동 龍神촌교육의원회 방문 龍神촌체육관 견학 교류의 저녁	"
29	금	高野町로 이동 道成寺견학 高野山견학	"
30	토	강의「일본의 마을」 가쓰라기町으로 이동 홈스테이오리엔테이션 홈스테이	"
31	일	< 홈 스테 이 > 환송회	"
8/1	월	広島로 이동	広島
2	화	宮島견학(嚴島神社, 민속박물관) 広島시내견학(원목자료관, 평화기념공원)	"
3	수	京都로 이동 京都시내견학(嵐山, 二条城, 北野天満宮, 金閣寺)	京都
4	목	奈良시내견학(東大寺, 春日大社, 국립奈良박물관, 法隆寺)	奈良
5	금	京都시내견학(清水寺, 西陣회관) 東京로 이동 귀국에 관한 설명, 제수숙	東京
6	토	< 귀 국 준 비 >	"
7	일	< 귀 국 준 비 >	"
8	월	자주연수 總理大臣 예방 평가회 환송회	"
9	화	귀국	"

④학생 그룹 (문과계)

		프 로 그 램 내 용			실시 장소
7/10	일	일본도착			東京
11	월	본계획의 브리핑 환영회	일본이학습 이수단체의 프로그램소개	생활가이던스	"
12	화	강의 「일본의 사회와 풍토」	강의 「일본의 역사와 문화」	부도감상및 교환회	"
13	수	日産자동차村山공장 견학			"
14	목	대학교견학(세방으로 나누워, 東大, 東京外大, 早稲田, 亜細亞大, 오자노미즈대, 津田塾)			"
15	금	강의 「한국과 일본」	자주연수	영화감상	"
16	토	山中湖로 이동	오리엔테이션	그룹토론	山梨
17	일	그룹토론	레크리에이션	그룹토론	"
18	월	그룹토론발표(그룹별)	그룹토론발표(전체회)	교류의 저녁	반성회
19	화	富士, 箱根견학(富士山五合目, 小涌園)	東京로 이동	오리엔테이션	東京
20	수	文部성 방문(강의, 슬라이드 「일본의 교육제도」)	国会견학	NHK견학	東京타워
21	목	東京증권거래소 견학	東京学芸대학 방문(학장예방, 대학도서관 견학)		"
22	금	강의 「일본의 산업사」	강의 「일본의 전체」		"
23	토	岐阜로 이동	홈스테이오리엔테이션	홈스테이	岐阜
24	일	< 홈 스테 이 >			"
25	월	< 홈 스테 이 >			"
26	화	岐阜현청 방문	현지사 예방	기간산업(싱가포르) 견학	환영리셉션
27	수	기간산업(야마자카작, 美濃加茂제작소)견학	美濃焼전통산업회관 견학	교환회	"
28	목	자주연수	岐阜대학교 방문	블링교류회	스포츠교류회
29	금	高山로 이동	高山 시내 견학(屋台회관, 日下部민예관, 高山陣屋)	캠프파이어	"
30	토	乗鞍스카이라인		불꽃대회견학	"
31	일	岐阜 미래 박람회 견학			"
8/1	월	広島로 이동			広島
2	화	広島 시내 견학 (평화기념공원, 원폭자료관)	宮島 견학 (嚴島神社)		"
3	수	大阪로 이동	大阪城 견학	奈良 시내 견학 (法隆寺, 東大寺)	奈良
4	목	京都 시내 견학 (金閣寺, 西陣회관, 清水寺, 고대友禪苑, 기온코너)			京都
5	금	東京로 이동		귀국에 관한 설명, 재수속	東京
6	토	< 귀 국 준 비 >			"
7	일	< 귀 국 준 비 >			"
8	월	자주연수	總理大臣 예방	평가회	환송회
9	화	귀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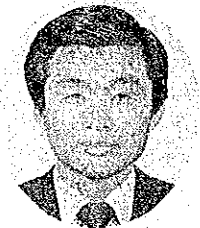
5. 초청 청년 명부

*이 름

*현 직

*인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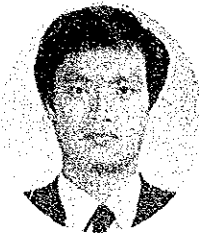
*전화: 직장, 자택



김 진성(金鎭成)
총단장
Kim Jin Seong
Education Resercher
Student Guidance Office
Ministry of Education
P16-64 Daechi Dong
Gangnam Gu Seoul Korea
02-739-9170



윤 태송(尹泰松)
부단장
Youn Tai Song
Assistant Director
Science Education Div
Ministry of Education
Kwan Ak Ku Silim
Dong Mi Sung Apt
2-912 Seoul Korea
855-3010 720-3045



이 재갑(李載甲)
간사
Lee Jae Kab
Officer
Student Affairs
Ministry of Education
384-3 Il Won Dong
Kang Namgu Seoul
Korea
730-8733



박 규성(朴奎星)
간사
Park Kyu Seong
Officer
General Affairs Div.
Ministry of Education
843-6 Bang Bae 1 Dong
Seo Cho Gu Seoul
Korea
02-720-3315

教員 A



김 기창(金基昌)
만장
Kim Ki Chang
Teacher
Suwon Chi-Dong
Elementary School
Shin Pan Po Apt
105-1106 319-6 Ingye
Dong Suwon City
Kyonggi
Province Seoul Korea
32-4086 44-9401



김 정순(金丁順)
Kim Jeong Soon
Teacher
Wol-Sung Primary School
Kyeong Buk Kyeong Joo
Si Sung Gun Dong Jang
Mi Apt 5-206 Korea
0561-42-9794 0561-41-3113



이 윤은(李潤銀)
Lee Yun Eun
Teacher
School Affairs
Dongdaejeon
Elementary School
Chungcheongnamdo
Taejeon City Kayang 2
Dong 43-1 Sujeong
Apt 6-304 Korea
042-74-3806 042-624-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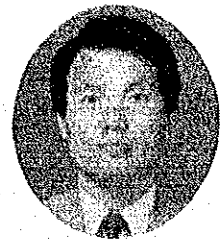
박 회자(朴嬉慈)
Park Hui Cha
Teacher
Bongre Elementary
School
Korea Busansi Namgu
Daeyyeon 3 Dong
Bandoboramansion 6Dong
20211o Korea
624-1208 44-4631



박 영순(朴英順)
Park Young Soon
Teacher
Seoul Kalsan
Elementary School
Seoul Yang Chun Ku
Mok Dong Apt 409-205
Korea
647-6444 649-7232



손 현자(孫鉉子)
Son Hyoun Ja
Teacher
Namsan-Elementary
School
Keong Sang Nam Do
Chinheasi Keong Ha
Dong 848-7 Chang Sung
Apt Dadong 301 Korea
0553-43-4210 0553-2-2556



배 상완(裨相完)
Bae Sang Wan
Teacher
Tae Gu City Shin Chun
4 Dong 360 Korea
053-754-3204 053-252-0305



조 춘정(趙椿汀)
Cho Chun Jeong
Teacher
Daigudong Primary
School
Chun Ra Nam Do Kwang
Gingun Kwang Gineup
Dongsungr 36-1 Korea
0638-2-3151 0638-32-2055



조 성익(趙成益)
Cho Seong Ik
Teacher
Seoul Doonchon
Primary School
Seoul Songpa Ku Jamsil
Dong 27 Apt 503-1509
Korea
412-0670 477-6866



정 수정(丁守正)
Chung Soo Jung
Teacher
Kwangju Seonmyeong
School
187-1 Jisan Dong Dong
Gu Kwangju City
(Pureun Apt107 Ward C)
Korea
062-232-4218 062-68-4547



전 왕희(田旺熙)
Cheon Uang Hee
Teacher
School Affairs
Chunjang Elementary
School
Chung Nam Cheong Yang
Kun Mog Myen Dae Pyeng
Lee 310-6 Korea
42-9215 42-0196



허 현국(許玟國)
Hur Hyun Kook
Teacher
Children Activity
In Hwa Primary School
248-86 Samdo-Hldong
Cheju City Chejudo
Korea
52-7065 22-9624



강 동률(姜東律)
Kang Dong Lyul
Teacher
Oyungeon Elementary
School
Kyeng Nam Hapchun Gun
Hapchu Ub Jengdae Dong
879-2 Korea
2-4257 33-3805



김 훈일(金勳一)
Kim Hoon Ill
Teacher
School Affairs
Chonju Seosin
Elementary School
23-40 (8Dong 407 Ho)
Seosin Dong Jenju Si
Jenbuk Korea
0652-72-6723 0652-3-0243



김 관식(金寬植)
Kim Kwan Sik
Teacher
Naju Saejibuk
Primary School
Chunranam Do Naju Shi
Rechang Dong 112-34
Korea
0613-32-3969 0613-32-5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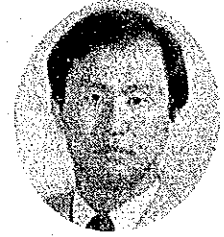
김 성일(金聖日)
Kim Sung Ill
Teacher
Seoul Shinam Primary
School
Seoul Song Pa Ku Song
Pa Dong #21-2 Hwang Je
Villa A-201 Korea
413-3922 476-0750



김 태호(金泰浩)
Kim Tae Ho
Teacher
Physical Education
Cheong Tong
Primary School
Tae Gu City Su Sung Gu
Manchon 1 Dong 1329-24
Korea
053-756-3564 0563-32-1004



구 자면(具滋冕)
Koo Ja Myon
Teacher
Poeun Samsan Primary
School
Chung Buk Poun Gun Ma
Ro Myon Kwan Gi Ri 359
Korea
0433-42-2755 0433-2-2618
0433-2-2619



권 춘기(權春磯)
Kwon Choon Ki
Teacher
So-Hwa Elementary
School
14/5 206-2 Chowon-Dong
Suwon Si Kyounggi Do
Korea
0331-45-5709 0331-5-2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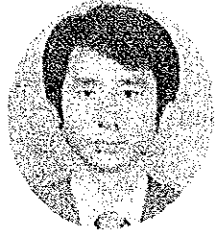
이 석문(李錫文)
Lee Sock Moon
Teacher
School Affairs
Chongup So Primary
School
Chonbuk Jeongjusi Sang
Dong 312-4 Jeongju
Mension 2-202 Korea
0681-2-9620 0681-2-3708



오 시형(吳始亨)
Oh Si Hyoung
Teacher
Seoul Keumho
Elementary School
Seoul Kwanak Ku
Shillim Dong 1577-21
Korea
868-3904 252-2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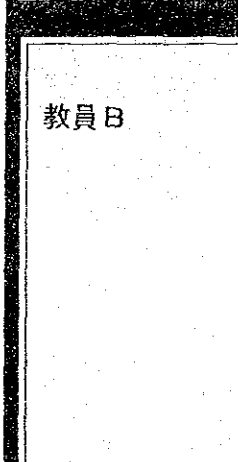
박 준석(朴俊錫)
Park Joon Suk
Teacher
Physical Education
Bu An Elementary School
Kang Won Do Chun Cheon
Si Hyo Ja 2 Dong
704-27 7/2 Korea
0361-3-6882 0361-53-2320



서 명석(徐明錫)
So Myong Sok
Teacher
Yonji Elementary
School
Busansi Busanjingu
Buam 1 Dong 298-48
Korea
051-809-0921 051-809-0540



정 용남(鄭龍男)
Jung Young Nam
Teacher
Yong Hyun Primary
School
Incheonsi Nambu
Yonghyundong 433-75
13 Tong 5 Pan Korea
882-7990 882-1097



구 자현(具滋賢)
반강
Ku Cha Hyon
Teacher
Ethics
Daechon Middle School
Korca Pusan Namku
Kwandong 775-4 Korea
0551-752-671 0551-622-7192



안 선례(安瑄禮)
Ahn Sun Rey
Teacher
Geography
Kwangnam Middle School
Kyonggido Kwangmyongsi
Chulsandong Jukong
Apt 1310-707
02-682-2421 02-612-0630



조 원화(趙源華)
Cho Weon Wha
Teacher
Ethics
Dae Wha Middle School
Kang Won Do Chun Cheon
City Hyo Ja 2 Dong
168-100 Korea
0361-54-6547 0374-33-2763



김 동란(金東蘭)
Kim Dong Ran
Head Teacher
New Town Department
Yunchun Middle School
190-23 Dae Jo Dong
Uenpyoung Gu Seoul
Korea
389-2616 354-0514



김 한영(金漢英)
Kim Han Young
Teacher
Ethics Department
Mansoo Middle School
Inchön City Mansoo 1
Dong 159-13 Korea
423-5032 425-0090



김 명자(金明子)
Kim Myung Ja
Teacher
Sociology (Geography)
Bon Ryang Middle
School
Gwangju City
Ssangcheon Dong
Myunggi Apt 1103
Korea
062-363-5998 062-362-9681



경 혜영(景惠永)
Kyoung Hye Young
Teacher
History
Ban Weol Middle School
144-4 Yeun Moo Dong
Suwon City Kyung K1 Do
Korea
0331-6-0933 0345-80-0013



신 현자(申賢子)
Shin Hyon Ja
Teacher
Social Education
Chongsan Middle School
Chungchengbukdo
Chengjushi Sekkodong
126-29 Korea
0431-3-1788 0454-42-0189



서 옥련(徐玉蓮)
So Ok Lyun
Teacher
National Ethics
Dae So Middle School
357 Dong San Dong
Chung Gu Daegu Korea
053-53-9803 053-68-2402
053-252-9445



왕 영벽(王英碧)
Wang Yong Pyok
Teacher
Moral
Yogo Middle School
Pusan Dongraegu Sazic2
Dong 630 Sazic Royal
Apt 9-106 Korea
051-866-1848 051-864-2726



윤 서옥(尹徐玉)
Yoon So Ok
Teacher
Social Education
Haenam Duryoon
Middle School
Chullanamdo Haenamgun
Pukpyungmyun
Kamchangri 568 Korea
0634-33-8548 0634-33-0092



최 영수(崔永受)
Choi Yeong Su
Teacher
History
Yeong Kwang Middle School
Kyong Buk Yeong
Ju City Yeong Ju3-Dong
470-220 Ju Gong Apt
3 Dong 402 Ho Korea
0572-32-8709 0572-2-3127
0572-2-3129



강 영석(姜榮錫)
Kang Young Suck
Teacher
Ethics
Kumi Middle School
Kyung Buk Gumi Song
Jung Dong 3 Chugong
Apt 32-4- Korea
0546-53-6829 0546-52-2524



김 병국(金秉國)
Kim Byung Gook
Teacher
Moral Education
Baek-Sok Middle School
15 Dong 3Ho Shi Bum
Apt Hwa Gok Dong
Gang Su Gu Seoul Korea
692-9841 692-2886



김 상영(金祥永)
Kim Sang Young
Teacher
Jae Hyoun Middle School
2-101 Hansin Apt
Sanggye Dong Dobongku
Seoul Korea
02-973-4515 02-972-5474



이 동배(李東培)
Lee Dong Bae
Teacher
Social Education
Mu-An Middle School
Kyong Nam Milyang Gun
Milyang Yup Naeyi Dong
Milsung Apt 7Dong 342
Korea
52-2187 52-0064



이 정옥(李廷玉)
Lee Jeoung Ok
Teacher
School Affairs
Pu An Girls Middle
School
161-3 Seo Yi Ri Bu An
Eup Bu An Gun Jeon Ra
Puk Do Korea
0683-2-2701 0683-2-2027



문 석중(文碩鍾)
Moon Suck Jong
Teacher
Social Education
O-Hyun Middle School
1103-10 Gun Ip Dong
Che Ju City Che Ju Do
Korea
53-4891 22-4214



박 종일(朴鍾一)
Park Jong Il
Teacher
The Attached Middle School
College of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
Chung Buk Cheong Ju
City Bong Myong Dong
669 Korea
0431-63-3788 0431-4-3345



라대용(羅大龍)
Ra Dae Yeong
Teacher
Ulsan Taehwa Girls
Middle School
147-11 Sinjung Dong
Ulsan City Kyongnam
Korea
0522-73-2993 0522-73-2570



엄 상준(廉相俊)
Riem Sang Choon
Chief
Student Affairs
Deung Chom Middle School
Kieng Gi Do Si Hung Gun
Ul Wang Up Sam Ri U
Song Apt 107-103 Korea
0343-55-6227 02-693-0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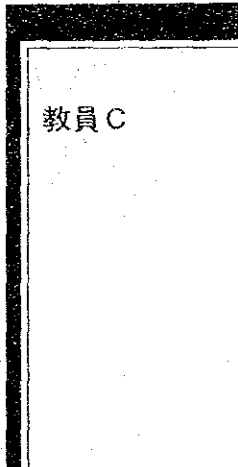
침 한식(沈漢植)
Sim Han Shik
Teacher
Ethics
Okkwa Middle School
Kwangju Provincial
City Puckku Woosandong
554-40 Korea
062-526-0567 0688-62-5076



송 종석(宋鍾錫)
Song Jong Seok
Teacher
School Affairs
Iin Middle School
Chung Ckeong Nam Do
Kong Ju Gun I-In Myn
I-Ni Ri 208 Korea
0416-53-4199



김 호길(金湖吉)
Kim Ho Kil
Teacher
Iri Dong Middle School
321-190 Numjung Dong 2Ga Iri
Chonrabuk-Do Korea
0653-3-9466 0653-2-3164



성주경(成周慶)
반장
Sung Joo Kyung
Teacher
Geography
Yangchung High Schol
Seoul Kuro-ku Kuro
1 Tong Jungang Heights
Apt. 4-1406 Korea
02-867-1343 02-649-70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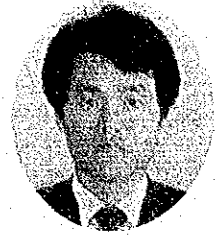
김 정자(金京子)
Kim Koung Ja
Teacher
Korean History
Tongyong Girls High School
Kyungbook Gumi-Shi
Doryang-Dong 536-1
Korea
52-0097 42-8512



김 광례(金光禮)
Kim Kwang Rye
Teacher
Korean History
Kohung Girls Commerce
High School
Chunam Kohung Gun
Kohung Eup Namgye-Ri
460 Korea
2-2593 2-3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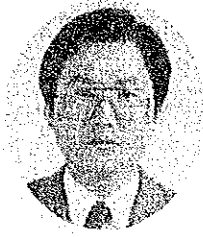
이 옥란(李玉蘭)
Lee Ok Ran
Teacher
School Affairs
Moohak Girls High School
Seoul Seocho-gu
Kaepodong 9081
Hansin Apt 1-406
Korea
574-2249 292-8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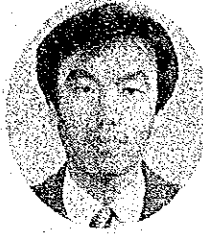
장 두익(張斗翼)
Chang Due Ik
Teacher
Department Ethics
Dnaggok High School
Dongjak-Ku Sadang
3Dong 141-106 Korea
02-884-3855



장 석윤(張錫允)
Chang Sok Yun
Economic Education
Counseling
Kun San Joong Ang
High School
Chun Puk Kun San City
Su Song Dong 10-7
Jung Dong Apt Ga Dong
202 Korea
0654-63-6258 0654-62-9109



최 종륜(崔鍾崙)
Choi Jong Youn
Teacher
Guidance Department
Kangneung Girls High
School
Korea Kangwon Kangnung
Noamdong Gaenari
Apartment NA-208
Korea
3-4936 42-8893



정 영일(鄭榮一)
Chong Yong Il
Teacher
Ethics
Namsong Girls High School
Pusan Dong-Ku Choyang
Dong 2Dong Dongil Park
Apt 3-311 Korea
051-43-6838 051-44-7967



정 두락(鄭斗洛)
Chung Du Lak
Teacher
Korean Ethics Education
Pohang Girls High School
NA 117 HO 27-62 Sang
Do-Dong Pohang-Shi
Kyong Sang Buk-Do
Korea
0562-72-8196 0562-2-4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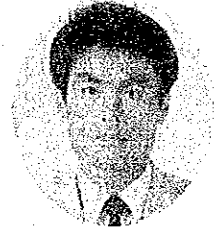
정 현구(鄭顯玖)
Chung Hyun Koo
Teacher
High School 3rd Grade
Dongsan High School
Inchun Bookgoo
Boopyung 2-Dong 746-2
(11/4) Korea
525-7905 74-7828



하 태일(河泰一)
Ha Tae Il
Teacher
Korean History
Kyongnam Science
High School
Kyungnam Chinjucity
Sangdaedong 239-32
Korea
55-1279 53-3533



정 재학(鄭在鶴)
Joung Jae Hak
Teacher
School Affairs
Shintanjin High School
Chung-Nam Cheon-An
City Gusung-Dong
Bidulgi Apt 106
433-2 Korea
0417-565-1762



김 종화(金鍾和)
Kim Chong Hwa
Teacher
Social Studies
Kyungnam Technical
High School
Busan Kumjung-Ku
Bugok 1 Dong 888-68
(21/2) Korea
512-8869 802-3161

042-92-2932



김 충수(金忠洙)
Kim Chung Su
Teacher
School Affairs
Taechon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Chungnam Boreong Gun
Cheongso Myeon Chinjuk
Ri 404-3 Korea
0452-32-9130 0452-2-7701



김 회찬(金喜贊)
Kim Heui Chan
Head Master
Ethics
Bibong High School
Gŭng Gido Suwon Hwaseo-
dong
Hwaseo Apt 46-505
Korea
0331-44-0851 0339-6-0793



김 호규(金鎬奎)
Kim Ho Gyu
Teacher
Ethics Department
Dae Kyung Commercial
High School
Seoul Soung Buk Gu
Soung Buk-Dong 1 Ga
21-3 Korea
763-7912 235-5155~9



김 기배(金基培)
Kim Ki Bea
Teacher
National Ethics
Susong High School
Gŭng Gi Suwon Jowon
664-6 (7/4)
Korea
46-7223 43-2256~9



김 선권(金善權)
Kim Sun Kwon
Teacher
National Ethics
Haenam High School
Kwangju City Bukku
Yongbondong 696-27
Korea
062-56-2658 0634-2-4408



김 용익(金龍翼)
Kim Yong Ik
Chief
School Affairs
Yonghae Girls High School
Kyongsngbuk Do Yongtok
Gun Yonghae Myon Song-
rae Dong 410 Yanghae
Girls High Sch. Korea
0564-32-0340 0564-32-0340



이 명열(李明烈)
Lee Myung Yul
Teacher
The Instruction Dept.
Chunnam Technical
High School
Kwangju City Donggu
Ilakildong 121-2
Korea
062-27-0431 062-27-0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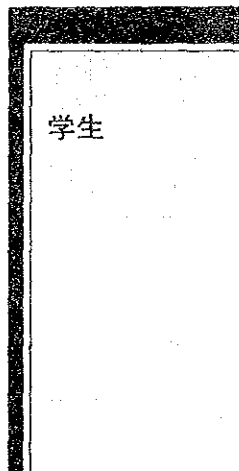
임 중헌(林鍾憲)
Lim Jong Hun
Teacher
Ethics
Shin Myung High School
Dae Gu Si Buk Gu Bok
Hyun Dong Bok Hyun Si
Yeong Apt 1 Dong 512 Ho
Korea
053-955-8806 053-23-9061



남 기철(南基哲)
Nam Gi Chol
Teacher
Department for Student
Chechon Commercial
High School
Chung Buk Chechon Si
Sin Baek Dong 204-11
Korea
0443-43-4266 0443-42-4712



양 충효(梁忠孝)
Yang Chung Hyo
Teacher
Department of Ethics
Seokwi Girls High School
Jejudo Namiejugun
Namwoneup Sinyeri
1561 Korea
064-67-2391 064-62-3700



진 봉윤(秦鳳潤)
반장
Chin Bong Yun
Student
Accounting
Dankook University
Seoul Songpa Bangi
Dong 127-9 Sinan Billa
Korea
418-9956 797-0581



장 미라(張美羅)
Chang Mi Ra
Student
Japanese Litera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nam Changheungguon
Changpeongmeon
Yangchonri 342 Korea
0665-62-3229 062-55-0011



장 정숙(張貞淑)
Jang Jung Suk
Student
Foreign Language
College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Dongjak Gu
Sangdo Dong 134
Korea
814-5251



김 미정(金美貞)
Kim Mee Jung
Student
Japanese Language
Departmen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0-1 Daemyung Dong 1
Nam Gu Daegu City
Korea
053-66-2800 053-950-5195



곽 은실(郭銀實)
Kwak Eun Sil
Student
Japanese Language
Han Yang University
74-13 Jongja Suwon
Konggi Korea
0331-7-4427 292-2111



이 동선(李東仙)
Lee Dong Sun
Student
Japanese Literature
Kyae Myeong University
Kyongsangbugdo
Ponghwagun Pongawaup
Haejo2Ri Korea
0573-2-2416 053-553-414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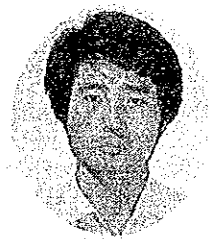
석 지영(石智暎)
Seok Ji Young
Student
Dep. of History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Seocho Ku
Banpo Dong Shinbanpo
15th Apt 43-501
Korea
02-593-7093 02-362-6251



하 칠(河七)
Ha Chil
Student
History Department
Kyungnam University
Jeonlabukdo Namweonkun
Geumgimyun Shin Walli
79 Korea
32-1700



홍 정표(洪政杓)
Hong Jung Pyo
Student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64-646 Nongsungdong
Seogu Gwangju Korea
062-363-2900 062-232-8151



황 선용(黃善容)
Hwang Sun Young
Student
English Language Education
Won Kwang University
Jeonguk Kzmjegun
Bongnammyon Daesongri
339-6 Korea
52-2111



정 기환(鄭基煥)
Jeong Gi Whan
Student
Public Administration
Inha University
Kyoung Ki Do Yang Ju
Kun Kwang Juck Myun
Kwang Suck R1 258
Korea
0351-40-6342 032-862-0077



정 승원(鄭勝元)
Jong Seung Won
Student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aegu University
83-2292 353-3181
353-3191



김 찬팔(金燦八)
Kim Chan Pal
Student
Department of Law
Law Collage Yeungnam
University
754-2940 053-82-5111
053-82-5119



김 진우(金鎮雨)
Kim Jin Woo
Student
Law of College
Dongguk University
Seoul Sungdonggu
Sungsu 2GA 315-48
Korea
468-5436 267-8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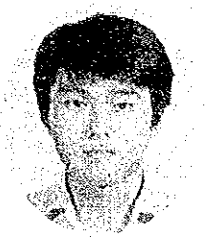
김 낙중(金洛中)
Kim Nak Jung
Student
Archaeology & Arts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Seosan-Gun
Haemi Myon Hyuan Ri
188 Korea
0455-4-2354 02-880-5302



김 낙규(金洛圭)
Kim Nak Kyu
Student
English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ung Nam Taejon Chung
Gu Munhwa Dong 284-73
Korea
02-526-2585 02-822-0101



이 건재(李建載)
Lee Gun Jae
Student
Economics
Kyung Hee University
7/3 42 Anhung Dong
Tongduchun Si Kyunggi
Do Korea
02-245-4683 02-965-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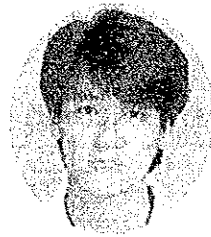
이 채성(李在成)
Lee Jae Sung
Student
Industrial Psychology
Sung Kyunkwan
University
149-32 Pungnap Dong
Songpa Ku Seoul Korea
02-478-2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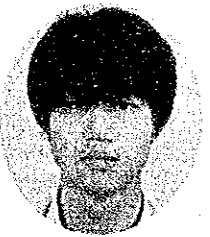
이 진성(李眞成)
Lee Jin Sung
Student
Mass Communication
Yonsei University
Kang Won Do
Chuncheon City
Hyoja 2 Dong 655-4
Korea
0361-51-0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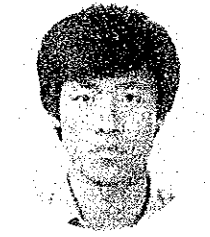
이 건상(李健相)
Lee Keun Sang
Student
Japanese Literature
Chungang University
Seoul Dong Jak Gu Dae
Bang Dong 393-60
Korea
02-815-3731 02-813-3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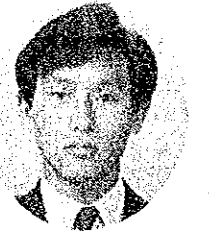
이 환석(李歡錫)
Lee Whan Suk
Student
Sociology
Dong A University
138 Seodaeshin-Dong
Seogu 1 Busan Korea
242-1011



박 학래(朴鶴來)
Park Hak Rae
Student
Philosophy
Korea University
Chung Cheong Bukdo
Jecheon Si Hwasan
2 Dong 231-1 Korea
0443-2-3649 02-94-2641



유 충권(柳忠權)
Ryou Chung Kwon
Student
English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City Nam Gu
Hong Ho 3 Dong San
20-1 25/3 Halla Apt
3-306 Korea
625-5881 56-0171~8



신 충균(申忠均)
Shin Chung Kyun
Student
Japanese Literatur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buk Chonju Si
Palbok Dong 2-GA 44-1
560-200 Korea
0652-4-3314 652-70-3261

6. 대한민국 청년초청사업 인수실적 일람표

● 1987년도(100명)

	인수	실시협력단체	실시현	JICA지부	지방협력단체	현등 청구기관	프로그램 코오디네이터	JICA 코오디네이터
근로청년	35	青少年育成国民 会議	神奈川	關 東	韓國青年歡迎委 員會	神奈川県民部 青少年室	黒沢郁夫	浜田美知枝 森下隆雄 金 勝汎
농촌청년	25	中央青少年団体 連絡協議會	青 森	東 北	青森県青少年団 体連絡協議會	青森県総務部文 書課国際交流班	佐藤忠良	牛尾恵子 榎本美和
청년지도자 A	20	中央青少年団体 連絡協議會	栃 木	關 東	栃木県青少年団 体連絡協議會	栃木県県民生活 部婦人青少年課	西広咲子	板坂純義 坂本由起恵
청년지도자 B	20	国際交流サービス 協會	福 岡	九 州	福岡県海外協會	福岡県企画振興 部国際交流課	増田忠幸	相田欣乃 松本周司

* 청년지도자 B 그룹에는 단장, 부단장, 간사가 포함된다.

● 1988년도(99명)

	인수	실시협력단체	실시현	JICA지부	지방협력단체	현등 청구기관	프로그램 코오기네이터	JICA 코오디네이터
교원 A (국문학교교사)	25	中央青少年団体 連絡協議會	岩 手	東 北	岩手県青年団協 議會	総務部総務学事 課国際交流係	佛木 完	浜田美知枝 板坂純義
교원 B (중학교교사)	25	青少年育成国民 會議	和歌山	關 西	和歌山県海友會	民生部青少年婦 人課	趙 南星	森下隆雄 榎本美和
교원 C (고등학교교사)	24	国際交流서비스 協會	長 崎	九 州	長崎県海外協會	企画部国際交流 課	原谷治美	牛尾恵子 金 鍾憲
학생 (무과제)	25	世界青少年交流 協會	岐 阜	中 部	日本国際連合協 會岐阜県本部	総務部総務課	臼井千里	坂本由起恵 徐 振煥

* 단장은 교원 B 그룹, 부단장은 교원 C 그룹, 간사는 교원 A 그룹, 및 학생 그룹에 각각 1명씩 포함된다.

7. 1988년도 청년초청사업 인수실적 일람표

일수기간	국명	분야명	인수	실시협단체	실시현
5월15일~6월14일 1진 208명	필리핀	학생 A(이과계)	24	日本經濟青年協議會	滋賀
	"	학생 B(문과계)	25	青少年育成國民會議	濱島
	"	교원	19	日本國際生活體驗協會	石川
	싱가포르	공무원 I	24	國際交流서비스協會	広島
	"	청년지도자	23	中央青少年團體連絡協議會	北海道
	"	교원	25	國際交流서비스協會	鹿児島
	"	학생	20	日本國際生活體驗協會	岡山
	태국	학생 A(과학계)	28	青年海外協力協會	山口
"	학생 B(농학계)	20	全國農村青少年教育振興會	京都	
6월19일~7월19일 2진 137명	아세안존심	공무원 I	30	青少年育成國民會議	九州
	브루나이	교원·학생	20	中央青少年團體連絡協議會	山梨
	인도네시아	공무원	20	勤勞厚生協會	愛知
	"	청년지도자	22	中央青少年團體連絡協議會	熊本
	말레이시아	학생	25	世界青少年交流協會	熊富
	"	근로청년	20	日本經濟青年協議會	大分
6월26일~7월26일 3진 92명	필리핀	청년지도자	26	中央青少年團體連絡協議會	佐賀
	"	농촌청년	20	青年海外協力協會	山形
	태국	청년지도자 A	23	유스워커能力開發協會	山福
	"	청년지도자 B(예술관계)	23	世界青少年交流協會	北海道
7월10일~8월9일 4진 99명	대한민국	교원 A(국립학교교사)	25	中央青少年團體連絡協議會	岩手
	"	교원 B(중학교교사)	25	青少年育成國民會議	和歌山
	"	교원 C(고등학교교사)	24	國際交流서비스協會	長崎
	"	학생(문과계)	25	世界青少年交流協會	岐阜
8월21일~9월20일 5진 149명	아세안존심	공무원 II	31	青少年育成國民會議	兵庫
	브루나이	공무원	20	國際交流서비스協會	神奈川
	인도네시아	학생	28	世界青少年交流協會	福岡
	"	농촌청년	25	全國農村青少年教育振興會	青森
	말레이시아	공무원	25	國際交流서비스協會	栃木
	"	농촌청년	20	青年海外協力協會	秋田
9월4일~10월4일 6진 36명	태평양제국 I	(파지, 공무원)	11	青少年育成國民會議	靜岡
	" II	(PNG, 교원)	20	國際交流서비스協會	茨城
	" III	(PNG, 교원)	10	日本經濟青年協議會	茨高
	" IV	(홍성, 교원)	21	中央青少年團體連絡協議會	高知
	" V	(홍성, 공무원)	24	世界青少年交流協會	沖繩
9월25일~10월25일 7진 93명	싱가포르	공무원 II	24	世界青少年交流協會	三重
	"	근로청년	23	유스워커能力開發協會	宮崎
	태국	근로청년	23	勤勞厚生協會	奈良
	"	농촌청년	23	全國農村青少年教育振興會	愛媛
10월16일~11월15일 8진 121명	인도네시아	교원	23	世界青少年交流協會	大群
	"	근로청년	22	勤勞厚生協會	阪馬
	말레이시아	교원	25	日本國際生活體驗協會	新鴻
	"	청년지도자	25	中央青少年團體連絡協議會	新岡
	필리핀	근로청년	26	日本經濟青年協議會	長野
11월6일~12월6일 9진 100명	중국	총단	4	國際協力서비스·센터	香川
	"	론로청년(도시경제청년)	24	世界青少年交流協會	徳島
	"	농촌청년(농촌경제청년)	24	中央青少年團體連絡協議會	島根
	"	교원	24	國際交流서비스協會	島根
	"	청년지도자	24	유스워커能力開發協會	福井
합계	아세안제국 6개국(800) 태평양제국(86) 중국(100) 대한민국(99)		47그룹 1085명		

8. 관련 청소년 단체 주소록

青少年育成国民会議 (청소년 육성 국민회의)

(National Assembly for Youth Development NAYD)

3-1, Kamizonochō, Yoyogi, Shibuya-ku, Tokyo

中央青少年団体連絡協議会 (중앙 청소년 단체 연락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s in Japan)

Nihon Seinenkan 5F, 15, Kasumigaokacho, Shinjuku-ku, Tokyo

世界青少年交流協會 (세계 청소년 교류 협회)

(The World Youth Visit Exchange Association WYVEA)

Yoshida Bldg., 2-7-3, Hirakawachō, Chiyoda-ku, Tokyo

日本国際生活体験協會 (일본 국제 생활 체험 협회)

(Japanese Association of the Experiment in International Living EIL)

Tachibana Bldg., 6F, 4-5, Kojimachi, Chiyoda-ku, Tokyo

全国農村青少年教育振興會 (전국 농촌 청소년 교육 진흥회)

(The Rural Youth Education Development Association)

Sue Bldg., 3F, 4-19, Shin-ogawachō, Shinjuku-ku, Tokyo

日本經濟青年協議會 (일본 경제 청년 협의회)

(Junior Executive Council of Japan JEC)

Randikku-Kandanishi Bldg., 3-2-7, Nishikanda, Chiyoda-ku, Tokyo

勤勞厚生協會 (근로 후생 협회)

(The Working Youth Welfare Association)

3-1, Kamizonochō, Yoyogi, Shibuya-ku, Tokyo

유스워커能力開發協會 (유스워커 능력 개발 협회)

(Development Association for Youth DAY)

Hibiya Bldg., 6F, 1-1-1, Shinbashi, Minato-ku, Tokyo

國際交流서비스協會 (국제 교류 서비스 협회)

(International Hospitality and Conference Service Association IHCSA)

The 1st Annex of the Foreign Ministry, 2-2-1,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青年海外協力協會 (청년 해외 협력 협회)

(Japan Overseas Cooperative Association JOCA)

Dai-2 Sano Bldg., 6F, 5-10-24, Minami-azabu, Minato-ku, Tokyo

國際協力서비스·센터 (국제 협력 서비스·센터)

(International Cooperation Service Center ICSC)

Economic Cooperation Center Bldg., Annex 42, Ichigaya Honmura-cho, Shinjuku-ku, Tokyo

대한민국 청년 초청 사업 (1988)

1989年 3月31日

発行 国際協力事業団

〒163 東京都新宿区西新宿2-1-1
新宿三井ビル内

編集 (財)国際協力サービス・センター

〒162 東京都新宿区市谷本村町42
経済協力センター 빌딩

무단전재를금함.

J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